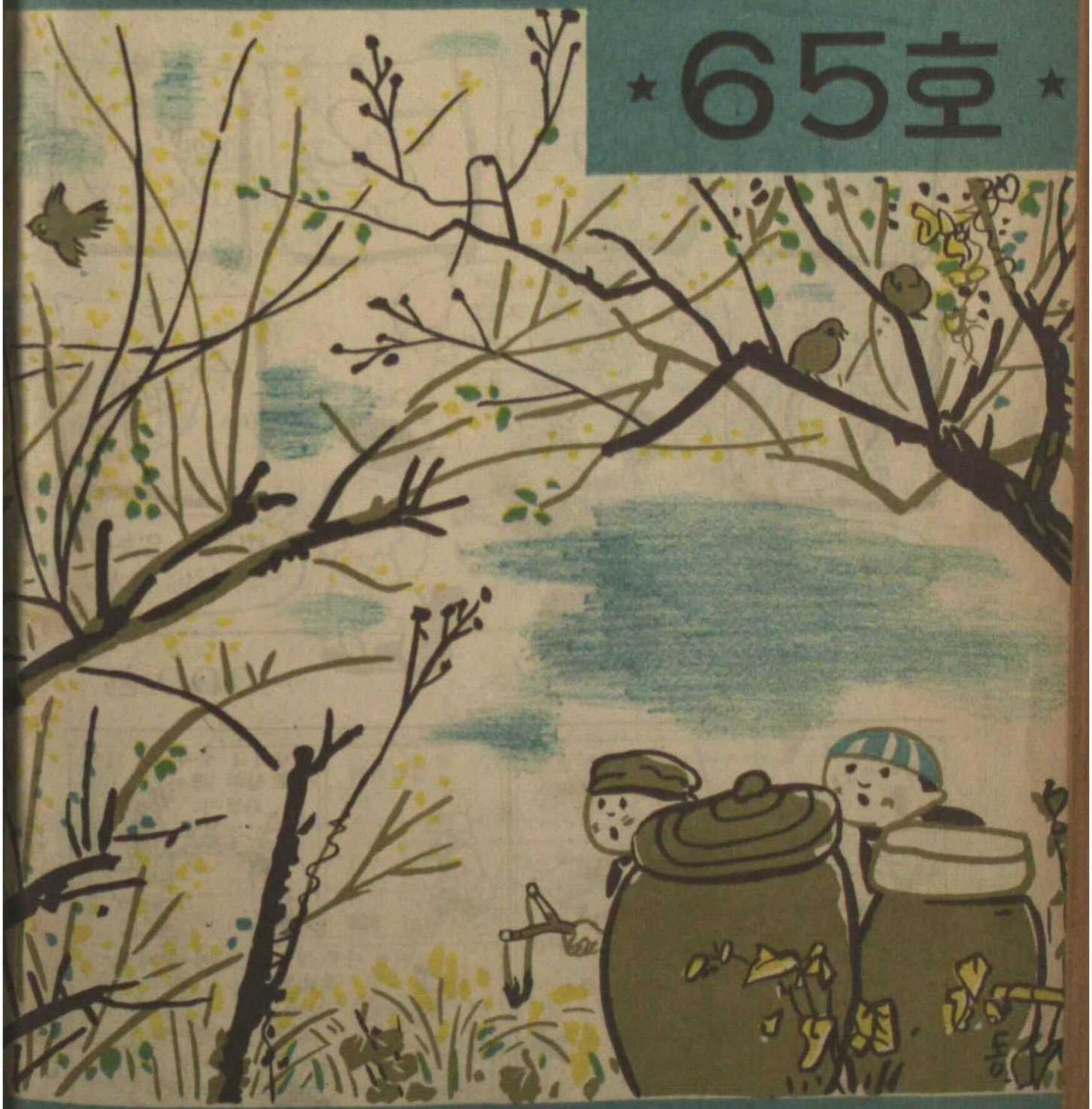
소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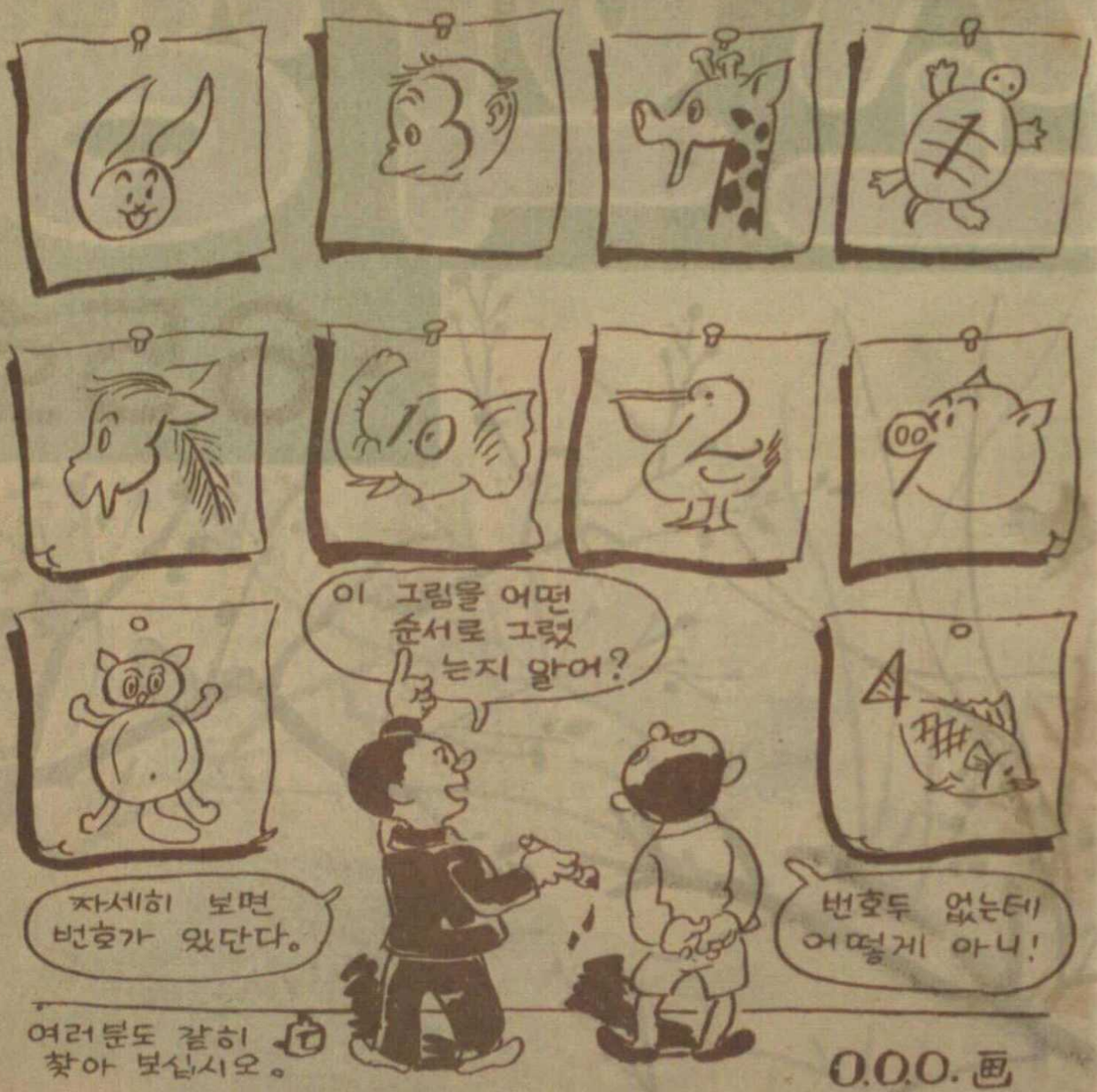
★65호★



아협 발행

3월치

어떤 순서로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어떤 순서로 그렸는지 알어?
자세히 보면 번호가 있단다.
번호두 없는데 어떻게 아니!
여러분도 같히 찾아 보십시오.
O.O.O. 画

아아니 저게 웬 일이야?
요놈! 어디 보자.
집어가자.
장님이나 주자. 돈 많이 준줄 알고 좋아 하겠지.
구두를 신겨야지 안되겠다.
그럼 이렇게 밟지....
이런 나쁜 영감! 정말 장님인줄 알고.
아야야야!?

소학생

4282년 3월 1일 발행

65호 3월처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메모★

3월1일…독립 선언 기념일.

3월5일…경칩(驚蟄=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나는 날)

3월8일…한양(漢陽=지금 서울)서 이충무공이 1545년에 낳았음.

3월18일…스에즈운하(運河=불란서 사람 레셉프가 설계하여 13년만에 완성했음)가 개통(開通)했음.

3월21일…춘분(春分=해가 적도(赤道)위를 직사(直射)한 때를 말함)

그림 • 정 현 웅

★차 례★

동요 • 연……전 오(11)
동요 • 과도……박병엽(35)

글—운동의 가르침……소 현(4)

유년동화 • 꽃수레……정비석(8)
소설 • 하얀 쪽배……정인택(14)
소설 • 소년삼국지……박태원(40)
그림동화 • 피노치오…작은돌(36)

☆이충무공과그아들…금 동(21)
☆백두산 이야기……홍종인(28)
☆동요 맛보기……박영종(30)
☆위인이야기……박동식(10)
☆오른쪽과 왼쪽……오병수(33)

○그림얘기 • 인형병정…정국(24)
○발견이야기(아루미늄움)…(32)
○소학생작품……(48)
○뒷걸장설명……(13)
○동요를뽑고나서……박영종(48)
○우리나라공부……조용만(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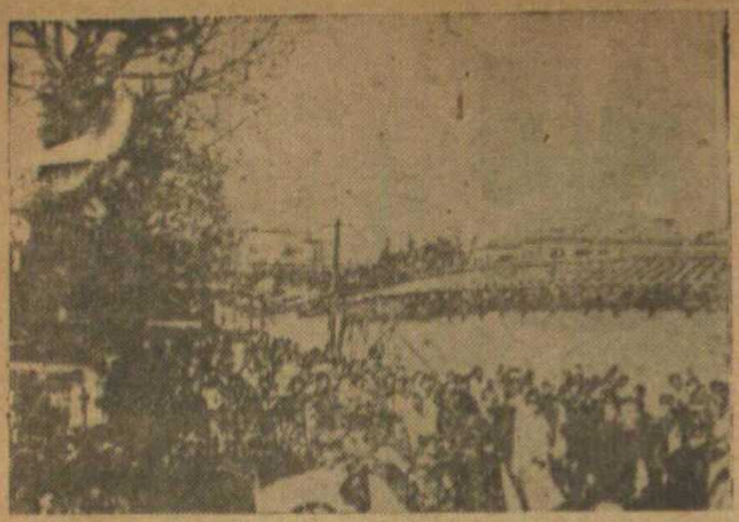
아협 상타기 동요 작문 모집(47)

만화 • 어떤 순서도?……(2)
만화 • 아담손할아버지……(2)
무엇하는모양일까?……(22)
깔깔박사…(31) 그림글자…(31)
소학생구락부……(50)
만물고나서……(50)

애독자 아철 상타기 문제……(45)

☆그림 그리신 분☆

정 현웅 • 김 의환 • 한 홍택
김 기창 • 조 병덕 • 최 수섭
결정 • 임 동은



3·1 운동의 가르침

소현

3·1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31년 전인 서기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민족이 일제히 일어나서, 일본에 대해 독립을 선언하고, 크게 독립운동을 일으켜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운동을 일으킨 날이 3월 1일이었음으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1일의 3자와 1자를 떼어서, 3·1 운동이라고 부르고, 또 그 해가 기미(己未)년이었음으로, 기미운동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3·1 운동은 우리 나라가 남의 나라에 매어 있는 식민지가 아니라, 당당한 독립한 나라라는 것과, 또 우리 민족이 남에게 매이 사는 노예가 아니라 자주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세계에 향해서 널리 호소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과 싸워 온 가장 뜻깊은 운동입니다. 우리 나라가 오늘날 영광에 넘치는 독립을 보게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우리를 도와 준 까닭도 있지만, 우리 민족이 기미년으로부터 30년 동안, 끊임없이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서 일본과 싸워 온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월 1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해마다 기미년의 이 날을 당하면, 옷깃을 바로잡고, 그동안 이 운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수 많은 위대한 열사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앞으로 영구히 이 3·1정신을 계승해서, 부강한 국가를 이루어 나아갈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1운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 그 내력을 보아 가기로 합시다.

◇ ◇

제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4월에 시작되어, 다섯해를 계속해 가지고, 1918년 11월에 끝났읍니다. 이 전쟁은 원체 규모가 컸고, 또 세계 어느 나라치고 관계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음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세계적으로 큰 변동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었읍니다. 더구나 전쟁이 끝나던 1918년 1월 1일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독일에 대한 강화조약(講和條約)의 기초 조건으로 발표한 열 네 가지 원칙(原則)가운데, "모든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유명한 민족자결(民族自決)을 열렬히 주장한 것이 있어, 이것이 세계의 모든 약소하고, 남의 나라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민족들한테 큰 희망을 주었읍니다.

그 때 우리 나라는 일본한테 압제를 받은지 10년이나 되어, 나라 안과 나라 밖에 흩어진 모

든 뜻있는 열사들은, 마음 속으로 언제든지 기회를 타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벌리오던 차이라, 이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크게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읍니다.

이럴 때에 마침, 1919년 1월에 이태왕(李太王)께서 돌아가시었는데, 그 돌아가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런점이 있다고 하여, 국내의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일본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리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좋은 조건이 안팎으로 익어 갔음으로, 3월 3일에 거행되는 이태왕 국장(國葬)에 13도 백성들이 서울에 올라 올 것을 예상해서, 그 때를 전후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모든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드디어 3월 1일은 닥쳐 왔읍니다. 이날 9시를 기해서, 우리 민족 대표 서른 세 분의 이름으로, 서울과 각 지방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서울서는 종로 탑골공원에 모였던 청년학생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독립만세를 높이 부르면서 시가로 시위행렬을 시작하였읍니다. 이것을 보고 삽시간에 4·5십 만의 군중이 모이어, 종로, 덕수궁 앞, 진고개, 남대문 근처 일대가, 독립운동의 거리로 변하였읍니다. 이 날에 하늘은 밝게 개이고 따뜻하여, 10년 동안 짓눌리어 음울하던 산천이, 일시에 새 광명을 만난듯, 명랑했읍니다.

이날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우리의 독립정신을 열렬히 외친 피끓는 명문으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또 최후의 한 시각까지 독립을 위하여 싸울 것을 맹세하였읍니다.

◇ ◇

이렇게 독립만세의 소리가 한번 일어나자, 국내 국외가 모두 물끓듯이 이에 응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읍니다. 서울에서는 3월 3일의 국장날만은 빼 놓고, 그 밖에는 날마다 시위운동이 행해졌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상점들은 문을 닫아 철시하고, 공장들이 파업하고, 관리들에게는 사직하고 나오라는 권고가 붙어 오고, 세금을 내지 않고,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남산과 북악산에는 태극기가 걸리는 등, 독립을 표시하는 모든 운동이 연달아 일어났읍니다. 일본 군대와 경찰이 이것을 누르고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진 악착한 수단을 다 썼지만, 그럴수록 우리 민족은 더욱 열렬히 이 운동을 계속해 갔읍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각 군데에서도 만세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가 없었읍니다. 앞동네에서 만세를 불렀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만세를 안부를 수가 있느냐고 하여, 서로를 앞을 다투어 더 많은 사람이 모이어, 더 크게 만세를 불러 기세를 올렸읍니다. 이리하여 만일 만세를 부르지 않는 동네가 있으면, 아무 동네는 만세를 부르지 아니 하였으니, 조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하여, 서로 왕래를 끊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만세만을 무기로 삼아서, 이 만세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도 억매있지 않은 자유민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왔읍니다. 칼 하나 갖지 않고, 총 하나 들지 않은 이 무장없는 독립운동을, 일본 경찰과 군대들은, 잔인무도한 것으로 학살도 하고, 고문도 하고, 가진 못된 짓을 다 해서 누르기에 발악하였읍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고 거꾸러지면서도, 조금도 굴함이 없이 이 운동을 계속하여, 온 세계가 이것을 보고 크게 탄복하였읍니다.

이 해 4월에는,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가정부가 설립되어, 당당한 정부의 형세를 갖추어 가지고, 오래오래 이 운동을 계속하여 나아갈 방책을 세웠읍니다. 이 때에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이롭지 못해서, 즉시 독립이 될 희망이 적었읍니다. 이리하여 부득이 장기전을 계속해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동안 국내와 국외에서 3·1운동 당시의 정신을 조금도 구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본과 싸워온 것은 특기할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독립정신을 발휘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가 생명을 잃고 그 가족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여 왔는지, 참으로 눈물없이 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 ◇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누가 양장책(洋裝冊)을 냈나?

구당 유길준(俱堂 兪吉濬) 선생

조 용 만

여러 분은 우리 나라에서 누가 제일 먼저 신식 양장책을 출판해 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책이라면 모두 양장한 책이어서 아무런 신통할 것이 없지만, 지금부터 오륙십년 전 여러 분들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에는, 책이라면 백지에다가 굵은 활자로, 더구나 순 한문으로 찍고, 누런 겉장에다가 붉은 실로 꿰매 놓은 그런 책이었읍니다. 양지에다가 한문과 언문을 섞어서, 작은 활자로 찍고, 푸른 크로스로 얌전하게 겉장을 만들고, 또 책 겉장 왼편에 금자로 책 이름을 박은 책은, 구경할때야 구경할 수가 없었읍니다. 이런 최신식 양장책을 처음으로 낸 분은, 구당 (矩堂) 유 길준(兪吉濬)선생이고, 책 이름은 서유견문(西遊見聞)이고, 발행 된 것이 지금부터 56년 전인 1895년(乙未, 高宗三十二)이었읍니다.

☆ ☆

유 길준 선생은 우리 나라 근대의 선각자이십니다. 1881년(辛巳, 高宗十八) 지금부터 70년 전에 일본에 건너 가서, 여러 가지 새 학문을 공부하다가, 이듬이듬해인 1883년에 민 영익(閔泳翊)을 따라, 조선 사람으로 처음 미국에 갔읍니다. 워싱톤에 가서 공부를 치르고, 민씨 일행은 곧 돌아 왔지만, 유 선생은 미국에 남아 있어 공부하게 되었읍니다. 유 선생 자신의 글에, 마사추 학문 대가 모씨 (麻沙州學問大家毛氏) 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쓰여 있으니, 아마 미국 마사추셋주에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선 영어를 배우고, 그 밖에 풍속, 문화, 정치, 경제, 교육, 군비 등 문물 백반을 보고 배워서, 크게 새로운 견문을 넓혔읍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공부하고, 1885년(乙酉, 高宗廿二)가을에, 미국을 떠나, 구라파를 거쳐서 그 해 늦은 겨울에, 서울에 돌아왔읍니다. 선생은 미국과 구라파를 돌아 세계 일주를 한 사람으로는 조선에서 제일 처음일 것입니다. 동시에 구미의 가장 새로운 지식을 가져온 사람으로도 제일 처음일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일본이 최후 발악으로 중국을 침략하여, 무고한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선전을 포고하자, 우리 임시정부도 일본의 선전포고가 있은지 나흘 뒤인 1941년 12월 12일에, 당당히 일본에 대해서 선전을 포고하고, 연합국 편에 가담해서 당당히 전쟁에 한몫을 보게 되었읍니다. 이리하여 1945년 8월에 일본을 꺼꾸러뜨려, 36년 동안의 원수를 갚고, 1919년 3월에 독립운동을 일으킨지 26년만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물 여섯해 동안을 두고, 끊임없이 싸워 와서, 오늘날의 성과를 보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강렬하고도 불굴하는 용감한 투쟁력을 발휘한 증거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느끼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 나라의 앞길을 개척해 나아가는데도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민족의 대동단결로 시작하여, 끝끝내 단결로 이기어 나아갔읍니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일본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3천만 민족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좌이니 우이니 또 무슨 파니 무슨 당이니 하고 힘이 갈라지지 않고, 아주 완전한 한 뭉텡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개의 큰 대포알 같이 적을 향하여 싸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러가 말한바와 같이, 우리들은 합하면 살고, 나뉘면 죽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오늘날 이런 큰 성과를 나타낸 것은, 우리 민족이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협력해서 싸워 이긴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지도자들과 일반 민중이 모든 자기네 한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돌보지않고, 오직 독립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온 때문입니다. 독립을 위한다면, 재물도, 지위, 명예도, 생명까지도 초개 같이 내 던지고 싸워온 때문입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읍니다.

세째로는 끝끝내 조금도 마음이 늘어진다든지, 실증을 낸다든지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거꾸러지면 저 사람이 대신 나서고 하여, 조금도 끊지지 않고, 3

이리하여, 당시의 완고한 사회에 큰 계몽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1887년부터 이 서유견문이란 책을 쓰기 시작하여, 이태를 걸려 1889년(己丑·高宗廿六)봄에 끝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우리 나라에는, 양장책을 인쇄하고 만들어 낼만한 설비가 없어서, 부득이 일본 동경으로 연락하여 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하여, 이듯해 후인 1895년 4월에, 국판(菊版)으로 553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호화로운 양장책을 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일반은 경탄하여 마지않았습니다.

이 책은 이름이 서유견문이라고 해서, 일종의 기행문 같이 생각되지만, 실상인즉 지구가 둥글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세계의 지리, 국가, 정치, 법률, 경제, 납세, 교육, 학술, 풍속, 의학을 일일이 계몽적으로 소개, 설명하고, 끝으로 구미 각국의 대도회를 소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서양 문화의 계몽 독본으로, 그 당시에 있어서는 물론, 큰 놀라움이었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참고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이 책을 국한문으로 쓴데 대한 설명을, 선생은 이 책 서문에서 간게 늘어 놓았습니다. 즉, 이 원고를 본 친구들이, 순 한문으로 쓰지 않고 국한문을 섞어 썼으니, 남들이 웃을 것이라고 한데 대한 선생의 답변입니다. 세계 각국에는 각각 제나라 말이 있고, 제나라 글이 있어서 그것을 쓰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훌륭한 글이 있으니, 나는 이 책을 우리 나라의 고유한 글로 쓰지 못한 것을 오히려 한탄할지언정, 널리 이 책을 상하귀천(上下貴賤) 일반에게 읽히기 위하여 국문을 섞은 것을 자랑으로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이 이런말을 했다는 것은 선생이 진정한 선각자이었던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새삼스레 선생의 위대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진 유길준 선생)

•1 운동을 계속 해 온 것입니다. 유래로 우리 민족은 처음 시작은 굉장하게 해 놓고, 뒷일은 흐지부지 한다는 비평을 많이 들어 왔는데, 이 3•1운동에서는, 이 불명예를 당연히 박차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열성을 가지고 싸워 왔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을 돌아다 보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당한 일을 바라볼 때에, 과연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우리들은, 3•1운동을 일으키던 당시와 같이 전 민족이 한 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 있다고 할 수 있읍니까? 다음으로 자기 일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 지위, 금전 그리고 목숨까지도 초개 같이 내 버리고, 성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까? 세째로, 조금도 쉬지 않고 마음이 긴장해서, 첫번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일을 끝끝내 하려고 하고 있읍니까?

유감스러운 일이나, 지금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기미년 3•1운동을 시작하던 그 당시를 돌아다 보고, 참으로 부끄러움을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독립이 되었지만,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크나큰 일이 남아 있읍니다. 이 큰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일으키던 그 때 보다 더 큰 열성을 가지고, 최후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 때와 같이 3천만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어야 하고, 명예나 지위나 금전이나, 그 밖에 일 개인의 모든 이익을 위하는 마음을 내 버려야 하고, 또 그리고 쉬지 않고 꾸준히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서른번째의 3•1운동 기념일을 당하여 우리는 그 당시를 회고하고, 다시 한 번 그 때 그 정신을 본받아, 우리가 하루바삐 남북을 통일하고, 남의 나라에 부럽지 않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행복히 살 수 있을 때까지 싸워 나아갈 것을 마음 속 깊이 맹세합시다.

이것이 3•1운동의 가르침입니다.

꽃 수레

정비석

그림. 의환

순자는 빨래하는 어머니를 따라 산 골짜기 개울 가로 왔읍니다. 구슬 같이 맑은 물이 돌 사이로 돌 돌 돌 흘러 내리고 있읍니다.

순자는 개울 물에 낯도 씻고 발도 씻었읍니다. 물이 얼음 같이 찹니다.

호젓한 산 골짜기를 빨래 방망이 소리가 멋지게 울리고 있읍니다.

순자는 개울 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요히 물을 내려다 봅니다. 물은 지꾸만 아래로 아래로 달아납니다. 그렇게 분주히 달려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읍니다.

"엄마! 물은 어디로 가는거유?"

순자는 빨래하는 어머니에게 물었읍니다.

"물은 바다로 가는거지!"

어머니가 대답했읍니다.

"바다에는 물이 굉장히 많우?"

"그럼 많구 말구. 바다는 굉장히 깊구 넓은데 모두가 물 뿐이란다!"

"나두 바다 구경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순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한 번 물을 내려다 봅니다. 물은 졸곧 아래로 아래로 흘러 갑니다. 풀잎 하나가 물 위에 둥둥 떠서 물과 함께 아래로 아래로 흘러 내려 갔읍니다. 순자는 저 풀잎도 바다 구경을 가려니 하고 생각했읍니다.

순자는 개울 가에 있는 찔레꽃을 한 송이 따서 물에 띄워 보았읍니다. 찔레꽃은 상글 상글 웃으며 물 위에 둥둥 떠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 갑니다. 찔레꽃도 바다 구경을 가는가 봅니다.

꽃송이가 멀리로 가 버리자 순자는 다시 한 송이를 따서 물 위에 띄웠읍니다.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지꾸만 물에 띄워 바다로 보냅니다.

일곱 송이 째 띄우는데 문득 어디

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 오더니, 물 위에 떠 있는 꽃송이 위에 가볍게 앉았읍니다.

꽃송이는 물에 둥둥 떠서 아래로 떠내려 갑니다. 꽃송이를 탄 나비도 꽃송이와 함께 둥둥 아래로 떠내려 갑니다. 꽃수레를 탄 나비를 전송하듯이 호젓한 산 골짜기에 빨래방망이 소리가 장단 맞추어 울려 옵니다.

꽃수레를 탄 나비는 자꾸만 아래로 아래로 떠내려 갑니다. 순자는 눈으로 나비를 쫓아 갑니다. 순자는 바다 구경을 가는 나비가 무척 부러웠읍니다.

꽃과 나비는 마침내 먼 숲 사이로 숨어서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래도 순자는 재삼스럽게 바다가 구경하고 싶었읍니다. 꽃과 나비가 부러웠읍니다.

순자는 저도 꽃과 나비와 같이 물에 둥둥 떠서 바다 구경을 가려고 물속에 들어 가 보았읍니다. 그러나 순자는 꽃과 나비처럼 둥둥 뜨지 않았읍니다.

"엄마! 나두 바다 구경 갈레야!"

순자는 빨래하는 어머니에게 졸랐읍니다.

"별안간에 바다 구경이 무슨 소리냐?"

"지금 꽃이랑 나비랑 물에 떠서 바다로 갔는걸!"

하고 순자는 볼을 쌨읍니다.

"너두 물에 떠 보려므나!"

하고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대답했읍니다.

"싫어! 엄마가 데리구 가 줘!"

"바다가 어딘데 네가 바다 구경을 간다구 그러니."

"어디든지 가!"

"바다는 굉장히 멀어서 지금은 못 간단다. 네가 엄마만큼 크거든 엄마가 구경시켜 주지!"

하고 어머니는 순자의 등어리를 두드려 주고 나서 빨래 광주리에서 사과와 과자를 내 주었읍니다.

순자는 사과와 과자를 손에 들고도 바다 생각이 간절해서 그냥 개울물만 내려다 보고 있었읍니다.

호젓한 산 골짜기 여기 저기서 빨래방망이 소리가 한가로히 들려 왔읍니다.

덴마아크를 튼튼하게 만든 구룬트위이크

박동식

1.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덴마아크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독일 북쪽에 연하여 바루틱크해(海)에 쭉 나와 있는 나라로, 크기로 말하면 우리 나라의 4분지 1 가량밖에 안되는,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겨우 350만 가량, 즉 우리 나라 수도 서울과 인천의 인구를 합한 정도이지요. 그러나 이 덴마아크 국민들은, 나라는 그렇게 작아도 아주 부유(富裕)하게 생활하여,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읍니다. 특히 농업(農業)에 있어서는, 세계의 모범농업국(模範農業國)이라 불리우고, 그 진보는 참으로 놀라울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 훌륭한 농업기술을 갖고, 국민이 번창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세기(100년) 쯤 전까지는, 안팎으로 어수선한 여러 가지 일이 많아, 거기에 따라 국민들은, 나라 일은 생각도 많고,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고 진취(進取)의 기상(氣像)이 없이, 그날 그날 힘없는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농업도 아주 유치한 것으로, 나라는 가난하여 참으로 비참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의 모범농업국이 되고, 또한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오로지 구룬트위이크라는 위대한 애국적 지도자가 나타나, 자각(自覺)못하는 농민들을 잘 가르쳐 계몽(啓蒙)시킨 까닭입니다.

2. 정신병에 걸리다

구룬트위이크는 덴마아크 어느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조상에는 훌륭한 학자, 승려(僧侶)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 훌륭한 조상의 피를 받아, 어려서부터 대단히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었읍니다. 고펜하아겐 (덴마아크 수도)의 대학을 졸업할 임시에는, 벌써 학문적으로 대가(大家)를 이루었었으나, 그 때부터 그는 지금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아무 이익도 재미도 없는 참으로 실생활(實生活)과 동떨어진 교육방침이라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그래서 구룬트위이크는 조용히 자기 나라의 옛날을 돌이켜 생각하고, 지금을 그리고 돌아올 미래(未來)를 생각해 보았을 때, 덴마아크의 가난하고, 또 농민들의 무지(無智)와 무기력한 것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라가 건국(建國)되던 그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의 애국심과 생기를 돋우려 하였읍니다. 그는 제일 먼저 이러한 뜻을 글로, 그 중에도 많은 시(詩)로 나타내어 했읍니다. 또 자기가 연구한 신화를 추려서 책으로 내는 등, 여러 가지로 힘쓰는 동안, 또한 종교(宗敎)에 대해서도 깊이 마음을 두었읍니다.

그러나 그 때에 있어서의 신앙을 건사하는 교회(敎會)나 종교가(宗敎家)들의 타락(墮落)이란, 구룬트위이크 뿐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릴 정도로 부패(腐敗)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서(聖書)를 깊이 연구하는 한 편, 교회의 현재 행실(行實)과 성서의 참된 뜻을 비교해 보고, 밤낮으로 괴로워 하고,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에 대하여 번거러워 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그는 심신(心身)이 함께 피로하여 그만 정신에 이상(異常)이 생겼었으나, 그 후 얼마 안있어 병은 전쾌(全快)하였읍니다.

3. 국민학교를 세우다

45세 되던 해, 구룬트위이크는 처음 영국에 가 보았읍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의 씩씩한 기상과 불타는 애국심, 또 높은 이상(理想)을 품고 원대한 희망과 더불어 일하는, 부스런하고 착실(着實)한 그들을 보고, 그는 크게 감

계하였습니다. 조용히 자기 조국을 생각하고……나라는 가난하고 국민의 거운없는 모양을 눈 앞에 그려 보며,

"아아! 같은 세계에 나라를 이룩하며, 영국과 벨마아크 사이에 이 같은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영국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 벨마아크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것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피시든지 우리 나라 건국하던 때의 그 활발하고 씩씩한 그 옛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영국사람,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든 뒤지지 않는 새 국민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제껏 방 안에서 책만 읽고 글만 쓰고 있었으나, 이러한 비지근한 일보는 좀처럼 이 벨마아크란 나라를 구해 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내 한 몸을 내던져서 국민을 가르치고 계몽시켜야 한다."

하고, 여기서 그는 벨마아크 구제운동(救濟運動)을 일으킬 굳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무지한 국민의 눈을 뜨고 정신의 길을 열어 주려면, 학교 교육부터 개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란 죽은 교육이다. 떨어놓고 아무 것이나 주입(注入)시키는 지금의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냐. 지식만 많이 집어넣었다고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든지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시험제도(試驗制度)나 없이 아무거나 오이기만 하는 교육

동요

연

진 오

하늘 높이 자꾸만
날구 싶어서
몸부림 치면서
솟아 오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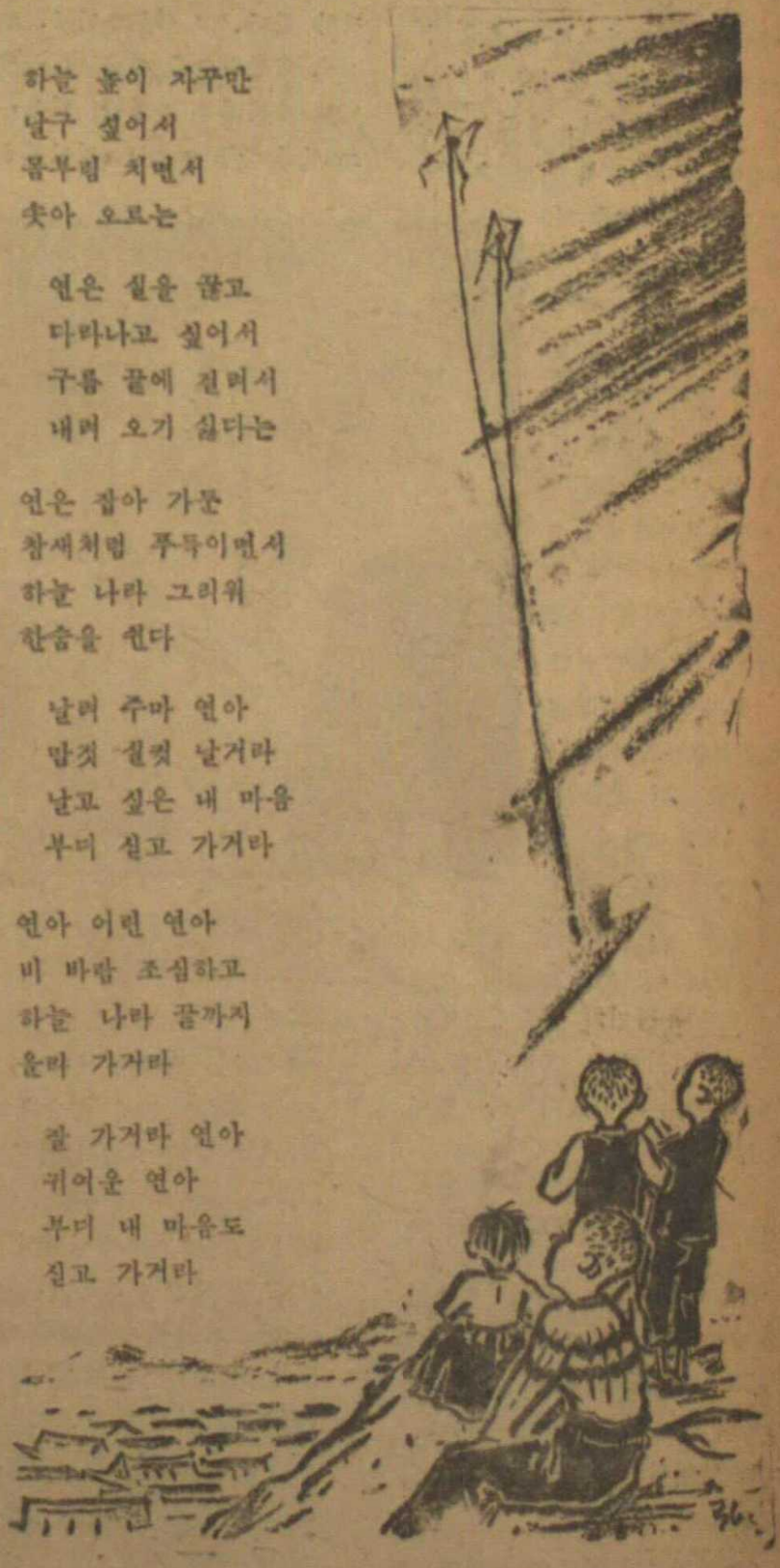
연은 실을 끌고
다라나고 싶어서
구름 끝에 걸리서
내려 오기 싫다는

연은 집아 가문
참새처럼 푸득이면서
하늘 나라 그리워
한숨을 쉰다

날려 주마 연아
맘것 걸렷 날거라
날고 싶은 내 마음
부디 싣고 가거라

연아 어린 연아
비 바람 조심하고
하늘 나라 끝까지
올라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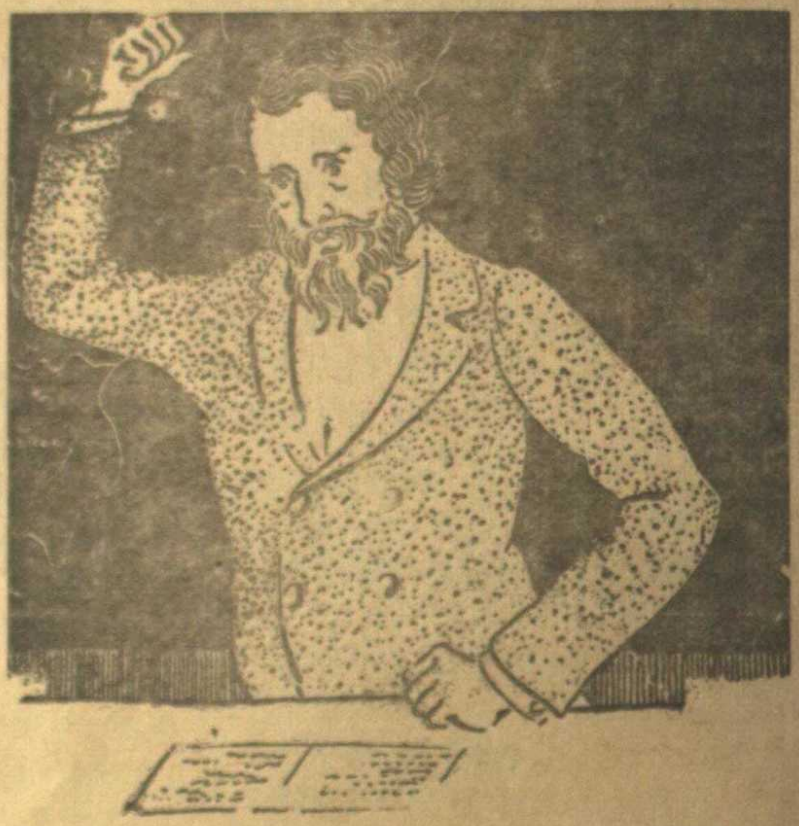
잘 가거라 연아
귀여운 연아
부디 내 마음도
싣고 가거라



그림·한 홍택

은, 소위며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교육이란 참 정신을 국민에게 넣어 주어야만 한다. 또 국민 전체가 같은 정신 밑에서 같은 열성으로 교육을 주고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같이 생각하며, 영국으로부터 돌아 온 뒤, 그는 국민 교육을 목표로 국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는 교육 방침을, 생각한 결과로 덴마아크 정신을 찾는 데에 힘썼습니다. 또 그는 인류의 문명생활(文明生活)을 가르치기에 힘쓰고, 이 문명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自負心)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와 국민문학(國民文學…자기 나라의 글)을 장려(奬勵)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서 사용하는 과목은 대부분이 이 역사와 문학이었고, 이것을 배움으로써 자기가 훌륭한 덴마아크 사람이라는 자각(自覺)과 정신을 더욱 더 높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4. 새롭게 된 덴마아크

구룬드위이크는 특히 청소년(靑少年)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청소년 때 품는 훌륭한 이상은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는 열렬히 청년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덴마아크의 장래는 청년들 손에 있다. 그러므로 덴마아크 청년들은 덴마아크 사람으로서만 훌륭하게 될 뿐 아니라, 좀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되지 않으면 안될 넓고 큰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학교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주의하고 고생한 것은, 학교 선생님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이 되려면, 지식과 학문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학문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안하든지, 정신이 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잘 움직이는, 즉 의지(意志)가 박약(薄弱)한 사람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민학교 선생되는 사람은, 열정과 열렬(熱烈)을 가졌으며, 역사를 알아서 가르칠 수 있고, 역사를 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생도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똑같게 나타내어, 그것으로써 인류 전체의 역사적 발전을 깨닫도록 할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즉 참된 정신을 가지고 적적한 정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의 강의(講義)는 항상 적적하고 굳센 정신을 가진 선생들로써, 산 정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결코 어려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정신과 의기(意氣)로써 열렬히 가르치는 까닭에, 그가 만든 국민학교 생도들은 언제나 교실에서, 기쁨과 희망에 가득찬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룬드위이크는 이리하여 자기 나라 농촌 방방곡곡에 국민학교를 세우자고 끝까지 싸워 성공했습니다. 국민학교는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참된 사람을 만들고, 또한 덴마아크에 초르는 정신을 기르는 학교였던 까닭에, 이 학교가 만들어진 후 얼마 안되어, 나날이 국민의 기풍(氣風)은 높아 갔습니다. 농촌이 점은 이를 가리지 않고, 덴마아크 국

민은 이 구룬트위이크의 감화(感化)를 받아, "사람이란 마음과 정신을 높고 깨끗하게 가져야 한다. 사람은 부즈런해야 한다. 그리고 덴마아크 사람은 옛날 건국하던 때와 같은 생기(生氣)있는 생활을 해서 우리 나라를 발전시켜, 세계 인류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모두 믿고 실행하게 되었읍니다.

국민학교가 생긴지 수십년 후에는, 온 나라 농민들은 새로운 생활과 정신을 갖게 되어, 자기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고, 자기 나라의 문학을 맛보고, 덴마아크 민족은 세계 인류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하다는 자랑을 가지고 농사에, 공부에, 또는 연구에 근면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개량하기에 힘쓴 관계로, 겨우 반세기(50년)란 짧은 시기에, 덴마아크는 모범농업국이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구룬트위이크의 열렬한 애국적 정신의 부르짖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죽은 뒤에도, 덴마아크 부흥(復興)의 은인으로, 모든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있읍니다.

세계 각국 가축

짐승들 중에는 들이나 깊은 산 속에서 사는 맹수(猛獸)도 있고, 또 우리들과 같이 집 속에서 살며, 귀염을 받거나, 또는 사람의 힘을 돕는 가축(家畜)들도 있읍니다. 이 가축들 가운데도 사람이 몸소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기르는 것, 젖이나 고기를 얻기 위하여, 또는 알을 얻기 위하여, 또는 털을 얻기 위하여 기르는 것 등, 그 수효는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선 개는 도둑도 지켜 주지만, 고양이와 함께, 사람이 사랑하는 동무로써 기르는 이가 많습니다. 물론 사냥할 때 데리고 다니려고 기르는 사냥개도 있지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 필요한, 또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짐승들을 통털어 가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서 제일 사람과 친숙할 수 있고 사랑을 받는 것은 개와 고양이라 하겠읍니다. 그런데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나 사냥을 하는데 쓰기 위하여 기르는 외에, 지방에 따라선 짐을 나르기도 하고 구루마도 끌고 썰매도 끌어 사람을 돕는 개도 있지요. 말이나 소는 마차 챙기 등을 끌고, 암소나 염소는 사람에게 밀크(젖)를 줍니다. 양은 자기 몸의 털을 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옷감을 짜게 하고, 소나 돼지는 가죽을 주는 동시에, 고기를 남기어 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을 줍니다. 또한 오리, 닭, 거위 등은 고기를 주는 동시에 영양있는 알을 낳아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가축들은, 무엇이든 자기의 타고난 것으로 사람을 돕고 있는데, 그 중 인도 코끼리는 사람을 태워 나르고, 산에서 잘라 낸 재목(材木)을 나르는 힘든 일을 하여 그 나라 산업(産業)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세아의 약대는, 보통 짐승이나 사람으로선 혼자 도저히 여행할 수 없는 사막(沙漠)사이의 귀중한 운반(運搬)의 역할(役割)을 하고 있으며, 약대의 사촌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마는, 남아메리카에 많이 나는 짐승으로, 이것 역시 짐을 나르는 한편 털을 주어 옷감을 짜게 합니다. 동양에 있는 물소는 추수 때, 곡식 터는데 도움이 되고, 또 물방아도 돌리어 사람을 돕습니다.

=뒤 걸장 설명=

알려드리는 말씀

"주간 소학생" 31·32·33호를 삽니다. 파실 분은 兒協 "소학생" 編輯部로 오시던지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새로 나오는 "소학생"과 맞바꾸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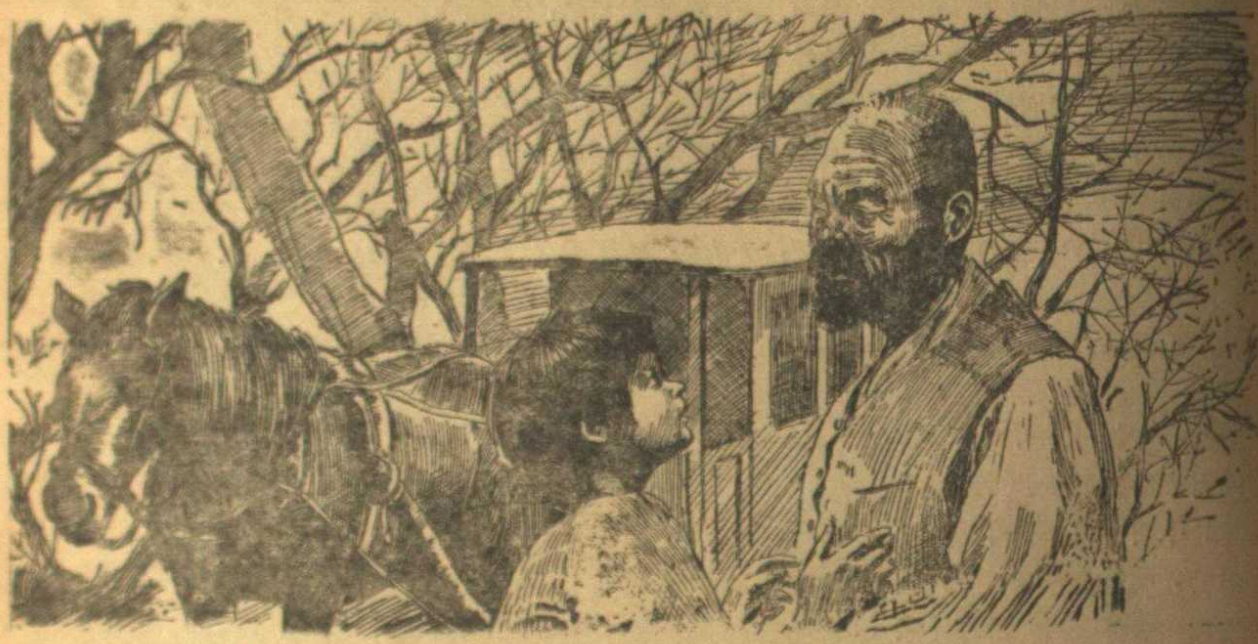
(편 집 실)

소녀 소설

하얀 쪽배

정 인 택
그림•정 현 웅

(2)



해는 저물고

(1)

오정이 훨씬 지나서, 경애는 다시 마차를 몰아, 아까 가던 길을 되돌아 오고 있었읍니다.

흩으러진 머리, 꽉 다문 입술, 시뻘건 눈은, 똑바로 앞 길만을 바라보고 있읍니다. 이마에 땀을 씻을 줄 조차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윽고 병원 문 앞에 다달은 경애는, 마차를 내리자 근두박질을 해서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 갔읍니다.

"선생님!"

이름만이 전찰실이지, 찬 바람이 도는 마루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최의사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읍니다.

"선생님!"

경애는 주머니에서 돈 삼천원을 꺼내어 톡탁 내밀며,

"선생님, 약 값 가져왔에요. 이것으루 그 주사약 사 주세요."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최의사는 무서운 호령이나 들은듯, 전신이 긴장되었읍니다.

"……"

최의사는 얼른 무엇이라 말이 안나오는지, 놀란 표정으로 잠간 멍하니 서 있더니, 다음엔 덤썩 경애의 어깨를 껴안고,

"네 이름이 경애렸지?"

"네."

"그래 알았다. 곧 약 사가지구 갈테니, 어서 어머니 곁에 가 있거라."

"네, 그 동안에 무슨 일이나 나지 않았는지……궁금하니까 빨리 가 봐야겠에요. 선생님! 그 주사 맞으면 어머니 병환은 꼭 나으시지요?"

최의사는 눈물 어린 눈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나서, 벽에 걸렸던 모자를 떼어 들었읍니다.

(2)

경애가 덜그럭 덜그럭 비탈길로 마차를 몰고 있으려니까,

"경애야, 경애야."

고함을 치며 넝마장수 곰보할아버지가 언덕 위에 서서 손짓을 했읍니다. 어서 오라는 것이었읍니다.

경애는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읍니다. 혹시 어머니가 더 하시지나 않은가……그렇게 생각하니, 그만 눈앞이 캄캄할 지경입니다.

"할아버지."

언덕 위까지 단숨에 마차를 끌어 올린 경애는, 곰보할아버지 가슴에 매어 달렸읍니다. 숨이 차서 헐떡헐떡 할 뿐, 말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어머니……어머니가……"

"집을 비구 어딜 갔더란 말이

나? 빨리 집에 가 봐라. 아까 버림 너를 여간 찾지 않으신다. 아마……"

"그럼 전 먼저 가겠에요. 할아버지 마차 좀……"

"그래 염려말고 어서 가거라."

말 고삐를 할아버지에게 맡긴 경애는, 나는 듯이 집쪽을 향하여 다름질쳤읍니다.

여전히 천장이 얕은 컴컴한 방, 냄새 나는 방, 깃기 없는 얼굴로 그 방 아랫목에 어머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누어 계셨읍니다.

"어머니!"

경애는 와락 달려들어, 이불 위로 어머니를 껴안았읍니다.

꼬치꼬치 여위신 어깨가, 얇은 이불 밑에서 가만히 들먹어렸읍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어머니!"

경애는 또 한번 부르고, 팔에 힘을 주어 어머니 몸을 흔들었읍니다.

어머니의 힘없는 눈동자가 겨우 경애쪽으로 향했읍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무엇을 찾는 듯 허공을 어루만집니다.

경애는 또 한번 목이 메어,

"어머니!"

악쓰고 나서,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읍니다.

어머니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읍니다. 스르르 눈을 감으시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한방울 힘 없이 굴러 떨어졌읍니다.

경애의 손에 잡혔던 어머니 손이 고목나무 쓰러지듯, 이불 위로 툭 떨어졌읍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이었읍니다.

(3)

곰보할아버지가 갖다 주셔는 밥상을 대하고도 경애는 밥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읍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경애는 멍하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어서 한술 뜨구 기운 좀 채려라. 이미 돌아가신걸, 자꾸 생각하면 뭘허니."

햇볕이 봄날 같이 따뜻한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은 곰보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곰방대를 댓돌에다 탁탁 털으십니다.

경애는 여전히 말이 없읍니다. 만들어 놓은 사람 모양으로 꼼짝도 안했읍니다.

한참만에 고개를 번쩍 처들은 경애는,

"할아버지."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읍니다.

"왜?"

"방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나봐요."

경애는 엉거주춤하고 얼굴을 돌이켜 안방쪽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곰보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 흔들며,

"쓸데 없는 소릴……어서 밥이나 먹어라."

그러고, 가래침을 탁 마당에 다 뱉으셨읍니다.

"아네요……들어 보세요……경애야, 경애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신 것 같은데요."

"공연한 소리……니가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둘이 다투고 있을 때에, 부산하게 최의사가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 들어 왔읍니다.

"선생님!"

경애는 벌떡 뛰쳐 일어나, 최의사를 맞으며,

"선생님 늦었에요. 어머니는……돌아 가셨에요. 인젠……미국 주사약두……다아 쓸데 없에요."

이렇게 외치고 나서, 가슴에 매달려 또 엉엉 울기 시작했읍니다.

최의사는 이 말을 듣자 얼굴이 해쓱해지며, 그 자리에 우뚝 선채였읍니다.

곰보할아버지는 마치 못보겠다는 듯이 일어 서서, 마당을

★權泰應 童謠集★

감자꽃

여러 분이 잘 아시는 권태응 선생님의 첫 동요집이 나왔읍니다. 이 책에 있는 동요들은 대개가 흙냄새 향기로운 농촌동요인데, 모름에 사시는 분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그림•정현웅 선생님)

책값 120원

도서출판 文章閣 서울

서성서성 하며,

"에이, 빌어먹을 늙은이 같으니라구. 술 처먹는 것두 분수가 있지, 그래 제 어전네 죽는 것두 모르구……대체 어디를 쏘다니. 에이, 에이."

혼잣말로 입 안에서 중얼거렸읍니다.

(4)

소문을 듣고, 동네사람들이 우역우역 모여 들었읍니다.

좁은 집안이 별안간 떠들석했읍니다.

인제는 울줄조차 모르는 경애는, 그저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거는방 구석에가 쪼그리고 앉았을 뿐입니다.

이미 슬픈지 외로운지 그런 것 생각할 힘조차 없는듯 하였읍니다.

하도 급하게, 그리고 혼자서 당한 일이라, 어린 경애의 몸과 마음은 지금 갈피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쪽 하늘이 벌겋게 물들기 시작했는데도 아버지 소식은 깜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 가실만한 데를 두루 찾았으나, 아무데도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읍니다.

통행시간이 다 되어, 늘 가시는 술집에서 나오신 것까지는 겨우 알았으나, 그 후의 소식은 아무리 수소문해 봐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늦게 돌아 오시는 일은 있어도, 이렇게 아주 안들어 오시는 일은 없었읍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병환이 위중하신 줄 뻔연히 아시는 아버지가, 아무리 취하셨다기로서니, 집을 나가 주무실 수가 있겠읍니까.

아무데도 심상찮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경애는 자기도 어머니를 따라 죽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방 문이 열리며 곰보 할아버지가 고단한 낯빛으로 들어 오셨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못 찾으셨에요?"

반가운 소식이나 듣나 해서 경애의 눈은 샛별처럼 번쩍이었읍니다.

동네에서 추념을 모은다, 진단서를 말는다, 화장 허가를 얻는다……이런 일을 혼자서 도말아 해 주시는 곰보할아버지는, 지금 경애에게 있어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입니다.

반나절을 그런 일에 시달리고 나신 후에도,

"이런 무심한 사람이 있나, 어디 내가 또 한바퀴 돌아 보지."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 나가신 것이었읍니다.

곰보할아버지는 곰방대에다 담배를 꾹꾹 눌러 담아, 불을 붙여 무신 후, 두 불이 폭 패이도록 힘을 주어 두어 목음 빠시더니,

"그거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너의 아버지 같만한 데는 다 찾았는데 영 소식을 모르겠구나. 이상한 일이다. 인제는 자기 발로 돌아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

복 없는걸."

쫑보할아버지는 딱한 일이라는 듯이 혀를 끌끌 차십니다.

이러저러 장사 준비는 끝났으나, 정작 아버지가 돌아 오서야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경애는 울가망이 되어 소리 쳤읍니다.

"글쎄다……"

"할아버지가 모르시면 어떡해요.."

"낸들……어떻게 아니."

잠간 방안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읍니다.

이윽고 와 하고 울음을 터뜨린 경애는, 미친듯이 방 밖으로 뛰쳐 나갔읍니다.

사방에 어둠이 서리어, 이미 해는 다 저문 모양입니다.

외롭게 걷는 길

(1)

경애는 입을 꼭 다물었읍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다 혼자서 참고 견디어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놓여 있는 환경이, 그럴 수 밖에 없기도 했지만, 남자보다도 어른보다도, 늠늠하고 꿋꿋한 데가 있는 것은 경애의 타고 난 기상입니다. 철날 때부터 의 오랜 고생살이가, 경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읍니다마는……

경애는 시들은 잡초 위에가 털썩 주저앉아, 높다란 화장장 굴뚝을 쳐다보았읍니다.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경애는 꾹 참고,

…한시, 두시…

손을 꼽아 봅니다.

세 시간 후면, 어머니는 하얀 한줌의 재가 되고 마실 것입니다.

경애는 그 재를 가슴에 안고 아무도 없는 텅 비인 집으로 혼자 돌아가야 합니다.

"춥지 않으냐?"

옆에 섰던 최의사가 물었읍니다.

"아아뇨."

아까, 화장장 철문이 덜컥 잠

★세계 명작 소년 소설★

十五少年 (십오소년)

쥬울스 베르느 지음●이 경열 번역

(十五少年의 한 장면)

일찍기 세계 각국 말로 번역되고 영화로도 박어져, 온 세계 어린이들에게서 절찬을 받아오던 아슬아슬하고 재미있는 불란서 소년 소설! 이야기는 어떤 나라 소년 15명을 태운 배가 어느 무인도에 표착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림 • 정 현웅 선생님)

책 값 200원 ★ 건민문화사 발행

파는데 • 有吉書店 • 文章閣 • 永昌書館

★후편은 지금 인쇄중입니다★

걸 때, 질식할 듯이 울고 날치던 경애와는 딴 아이 모양으로, 그 대답은 침착 했읍니다.

최의사와 나란히 서서 땅만 내려다 보고 섰는 곰보할아버지는 말이 없읍니다.

화장장까지 따라 온 사람은 이 둘 뿐, 그리고 경애를 집까지 데려다 줄 사람도 이 둘 뿐입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는, 경애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는 사람도 많았으나, 이 두 분이 우겨서,

"언제 올찌 모르는 사람을, 무슨 수로 기다린단 말이요. 나중에 청원은 내가 들을테니, 어서 오늘루 장사지내고 맙시다. 이 어린 것더러 혼자 시체를 사흘 나흘 지키게 할수 있나 없나 생각들 해보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화장을 지내게 된 것이었읍니다.

경애의 생각도 이 두 분과 같았읍니다. 아버지 신상엔 필경 무슨 상서롭지 못한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무심하다기로서니, 이럴 수가 있겠읍니까. 일은 이미 당한 노릇, 돌아가신 어머니나 먼저 편안하게 가실 데로 보내드리고, 아버지 찾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정작 경애는 입을 꽉 다물고 침착하게 앉아 있는데, 따라 온 어른 두 분은 어쩔줄을 몰라 쩔쩔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박하고 불쌍한 일이 있담……

입맛만 쩍쩍 다시며, 연해 눈

물을 비웠읍니다. 한참만에 최의사가 또 입을 열었읍니다.

"경애야!"

"네?"

"요 아래 내려가서 요기나 허구 기다리자. 춥기두 하구…"

그러니까, 곰보할아버지도 겨우 용기가 났는지,

"참, 그게 좋겠다. 선생님 말씀대루, 뜨뜻한 방에 들어가 앉아서 기다리자꾸나."

"네에."

경애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읍니다.

또 무심하고 높다란 굴뚝으로 눈이 갑니다.

맑게 개인 하늘이었읍니다.

희어멀쑥한 연기가 구름 같이 굴뚝 끝에서 피어 오릅니다.

"어머니 안녕히……"

아무리 마음이 굳은 경애라지만, 역시 나이어린 소녀였읍니다. 차마 그 다음 말을 입밖에 못내고, 가늘게 몸을 떨며 고개를 떨어뜨렸읍니다.

(2)

경애는 눈을 번적 떴읍니다. 벌써 해가 높다란 모양입니다.

같이 잔 동무들은 다 제각기 집으로 돌아간 듯, 방에는 경애 혼자만 누어 있었읍니다.

며칠만에 경애는 처음으로 이렇게 깊이 잠들어 본 것입니다. 그 동안의 피로가 일시에 터져 나온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자서라도…살아가야 할테니까…정신차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은 때

문이기도 하였읍니다.

부엌에서 웅얼웅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 왔읍니다. 여러 날째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일찍부터 와서, 불도 때주고, 밥도 지어 주고 하시는 것이었읍니다.

경애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옷을 갈아 입었읍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밖으로 나갔읍니다.

"잘 잤니?"

뒷집 기영이네 아주머니가 물으셨읍니다.

"네…오늘버텀은 지가 해 먹어두 된댄데…아이 참…"

경애는 부석부석한 얼굴에, 오래간만에 가냘픈 웃음을 띄웠읍니다.

경애의 웃는 얼굴을 본 기영이네 아주머니도, 함께 마음 속이 밝아지는 듯, "온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풀 더웠으니 어서 세수나 해라."

그러면서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십니다.

…네 웃는 얼굴을 보니까, 인제 한시름 잊었다…

아주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신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있으려니까, 기영이, 금란이, 상욱이…어제 저녁에 같이 잔 경애 동무들이 우루루 몰려 들어 왔읍니다.

"인제 아침 먹니?"

맏물이 상욱이가 마루 끝에 가 걸터 앉으며, 입을 비죽해 보입니다. 게으름뱅이…그렇게 놀린 것입니다.

"그래…아이 기집애두…"

경애는 밥을 씹으며 잠간 곁눈으로 흘기고 나서,

"너희들, 모두 오정밥이냐?"

"응…기영이만 아침밥…"

"그래서 기영이만 채보 가지구 왔구나"

기영이가 대답했읍니다.

"그래 난 지금 학교에 가는 길야. 어디, 잠꾸레기가 일어났나 보러 왔지. 그럼 얘들아 난 먼저 간다."

"그래."

"잘 가거라."

기영이를 보내 놓고 나서, 경애는 부리낳게 숨찰을 놀리며,

"내, 얼른 먹어 치게."

동무들을 보고 말했읍니다.

"천천히 먹어라, 애, 체할라!"

상욱이가 또 놀려댑니다.

"네 걱정이나 해…애. 네 옷고름좀 봐라. 커단 기집애가 그게 뭐냐, 밥풀덩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니."

"어디…"

상욱이는 얼른 고개를 수그리어, 저고리 옷고름을 만져 봅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옳지, 그렇지, 자구 일어났으니까 어른한테 인사드려야지 호호호."

"조런…깍쟁이 같으니라구…"

경애와 금란이는 좋아라고 손뼉을 치며 웃고, 속은 상욱이는 분해 죽겠다는 듯이 입을 비쭉하게 내밀었읍니다.

이윽고, 밥상을 치고 난 경애는, 상욱이 옆에 와 나란히 걸터 앉으며,

"성났니?"

하고 얼굴을 들어다 보았읍니다.

"그래, 성 났어."

그러나 상욱이의 얼굴은 생글생글 웃고 있었읍니다.

"애, 경애야."

"한참만에 상욱이가 엄숙한표정을 하고 경애를 불렀읍니다.

"응?"

"너…인제버텀 혼자서어떻게 살련?"

경애는 얼른 대답을 못했읍니다.

상욱이는 다시 말을 이어,

"너, 나하구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렇게 말라 말했읍니다. 경애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읍니다.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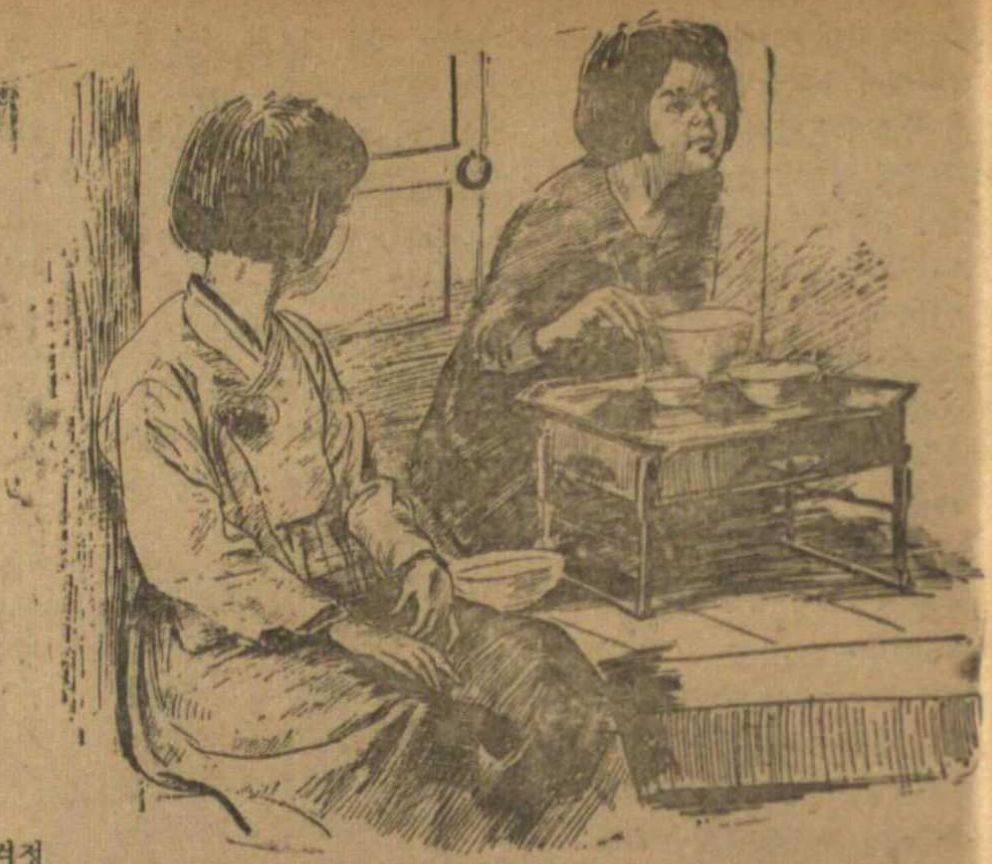
"내가 네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더니 말야, 아버지 말씀이, 와서 내 동생이나 봐 주구 같이 있으라구 그러시더라."

"……"

"학교에두 보내 주시겠대. 너 밤낮 학교에 가구 싶어하지 않았니, 잘 됐지 뭐야. 그렇게 해 경애야, 응?"

상욱이네 집은 식구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축에 들었읍니다.

고마운 말입니다. 그러나 경애는 아직 어떻게 해야 좋을찌를 생각해 본일이 없읍니다. 제 자신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아무리 고마운 말이라도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었읍니다.

경애는 한참만에 얼굴을 처들고,

아버지 소식 알 때까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겠어. 좀 생각해 볼께."

이렇게 어른 같이 [illegible] 했읍니다.

(3)

동무들이 마악 돌아 가자, 엇갈리어 최의사가 마당으로 들어섰읍니다.

"아이 선생님 오세요."

"응, 엊저녁엔 좀 편히 쉬었니?"

"네…너무 여러 가지루 걱정해 주셔서…"

"애들이…별소릴 다 하는구나. 너 혼자냐?"

"네. 마악 지금 동무들이 다 너간 길에요."

최의사는 마루에가 걸터 앉더니, 가방은 옆에 낀 채, 담배를 한대 붙여 물고 나서,

"경애야."

제삼스럽게 점잖은 목소리로 불렀읍니다.

경애도 따라서 엄숙한 표정을 지을 수 밖에 없읍니다.

"네."

몸과 마음을 도사리며 대답했읍니다.

최의사는 입을 열었읍니다.

"내가 너를 안지는 불과 며칠이 못되지만…꼭 내 맘에 들었다. 그래서…너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두 그랬을께지만…나이어린 너가 이렇게 외로운 몸이 된 것을 보니…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밤에는 네 앞날을 위해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 봤는데…"

"……"

"내게두 어린게 여럿 있지만…마침 그것들이 모두 사내놈이구, 딸이 하나두 없구나. 그래서…집의 사람하구두 의논한 끝에…너를 데려다 수양녀를 삼기루 했는데…"

"……"

"경애야"

"네?."

"내 딸이 되겠니? 안되겠니?"

고마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마음이 착할까?…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 동네 사람들은 경애를 위해서 지성껏 애들을 써 주고 있읍니다.

상욱이도 최의사도 그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경애에게는 경애의 생각이 있었읍니다. 다만, 아직 그것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고개를 수그리고 생각에 잠겼던 경애는, 이윽고 고개를 처들고,

"아직 정하지 못하겠에요. 좀 생각해 봐야겠에요."

이렇게 어른 같이 의젓하게 대답했읍니다. (계속)

★새로 나온 아협 책★
꿈나라의 아리쓰
그림·정 현웅
책값 80원

아름다운 이야기

금동

이 순신(李舜臣) 장군이 얼마나 훌륭하신 어른인가는 우리 민족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다 잘 아는터입니다마는, 이 순신 장군의 아들 면(葂)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는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듯 합니다.

이 순신 장군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엄격한 아버지의 가르침과 지극한 사랑 속에서 자라난 세 아들 역시, 모두 아버지를 닮아 씩씩하고 바른 소년들이었읍니다.

그 중에도 이 순신 장군은 끝의 아들 면을 유독히 귀여워하였읍니다.

이 순신 장군이 벽파진(碧波津)(지금 진도(珍島) 앞 좁은 바다)싸움에서 일본의 대함대를 전멸시키고, 위태로웠던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게 되자, 적장(敵將) 가등청정(加藤淸正)은 분함을 참지 못한 끝에, 충청도 아산(牙山)(이 순신 장군의 고향)에서 살고 있는 장군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오라고 그의 부하에게 명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이 순신 장군의 마을을 향해, 왜병들이 50여명이나 말을 타고 몰며 온다는 급보를 들자, 장군의 가족들은 몸을 피할 준비를 하고, 면에게도 이서 모양을 가자고 재촉하였읍니다. 그러나 한 일곱 살 나는 면은 일절말 하나 변하지 않고,

"아버지(순신)의 피를 받은 내가, 나아가 한놈이라도 더 적을 죽임이 마땅한것이 도망하다니 말이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어찌 더럽힐 수 있으랴."

하며 가족들의 만류도 완강히 거절하고, 그 어린 몸에 어울리지도 않는 긴 칼을 차고 활을 메고 말에 올라, 적병들이 온다는 동쪽을 향해 달려갔읍니다.

말을 달리기 오리쯤 하여, 면은 과연 왜병들과 마주쳤읍니다. 면은 말을 멈추고 활을 다려, 삽시간에 적병 세 명을 쏘아 죽였읍니다. 너무도 의외의 봉변에 깜짝 놀란 왜병들은, 면의 말을 포위하고 면을 향하여 조총탄환을 퍼부었읍니다. 면은 그 자리에서 한걸음도 물러남이 없이 활을 쏘아 대전하였으나, 면의 앞이 적병의 탄환에 맞아 꺼꾸러졌읍니다. 면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말위에 선채 활을 쏘다가, 화살이 다함에 활을 버리고 긴 칼을 빼어 빗겨 들었읍니다.

그 때에 적병들이 이렇게 물었읍니다.

"네가 대체 누구냐?"

면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읍니다.

"나는 이 면(李葂)이다."

"그러면 네가 바로 이 순신의 아들이냐?"

"그렇다."

"오! 그래, 우리들이 너의 집을 찾아 온 길이다. 너의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잔소리 말아라. 내 살아 있는 한, 너희놈들은 한발자욱도 이

길을 더 못가리라. 넹큼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면의 소리는 분노에 떨렸읍니다.

적병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우리들은 너의 가족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보호하라는 우리 대장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다. 네가 우리에게 항복을 하면 네 목숨을 살려줄 뿐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우리가 데려다 편안히 살리겠지만,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덤비면, 너도 또 네 가족들도 모두 죽일테다."

이 말에 면은 한번 크게 낄낄 웃고 나서,

"이 순신의 아들이 항복할 줄 아느냐. 이 순신의 가족이 너희놈들의 칼에 죽을지언정 항복할 줄 아느냐. 잔말 말고 썩 나와 내 칼을 받아라."

하고 호령하였읍니다.

그러자 적병의 장수인듯 한 자가 말에서 내려 서며,

"그럼, 나와 단 둘이서 칼싸움을 한번 해 보자. 너는 갑옷과 투구가 없으니 나도 갑옷과 투구를 벗으마."

하고는 칼을 땅 위에 꽂아 놓고, 투구와 갑옷을 벗었읍니다. 면은 적의 장수가 갑옷과 투구를 다 벗도록 그대로 서서 기다렸읍니다. 적의 장수는 나이 40을 넘어 보이는 얼굴에 여덟팔자 수염을 뻗히고, 두 눈이 사발처럼 크게 번득이는 사람이었읍니다.

두 사람이 칼을 마주 대고 섰읍니다. 적장은 면을 어리게 보고, 한 칼에 면의 머리를 두쪽으로 빼개버릴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나 적장의 칼이 면의 정면을 향해 내려 칠 때, 어느덧 면의 칼 끝이 적장의 옆구리를 찔렀읍니다. 적장은 그다지 중상은 아니었으나, 속으로 면의 칼솜씨가 비범한 것을 깨닫자 기색이 달라졌읍니다. 칼과 칼은 마침내 불꽃을 날렸읍니다. 칼과 칼이 맞부딛칠 때마다 무지개가 이는듯 하였읍니다.

면은 처음에는 수세(守勢)를 취하여 적장의 맹렬한 공세(攻勢)를 교묘히 막아 냈읍니다. 면이 수세를 취한 것은 적의 실력이 얼마나 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였읍니다. 적장은 여러 부하 졸병들의 면전에서, 일개 나이 어린 소년의 칼과 대전하여 오래 껀다는 것이 창피한 생각도 들고, 또 면을 처음 얏잡아 보았던 것이, 웬걸 상당한 강적임을 알고 나니 괘씸한 생각이 부쩍 치밀어 올라,

"요 고얀 놈을 한 칼에 베어버려야만…"

하고 씩씩어리며 날뛰었읍니다. 이러한 적장의 실력과 야심을 곧 알아차린 면은, 이번에는 수세를 버리고 공세로 옮겼읍니다.

면의 칼은 더욱 맹렬히 적장의 가슴을 향해 번득였읍니다. 적장은 아까의 창피하다는 생각도 괘씸한 분노도 사라지고, 이번에는 은근히 겁이 들기 시작하였으며, 그럴수록 마음이 조급하여졌읍니다.

그런데 웬 일일까요? 한참 공세도 나오던 면이 지진맥진한 듯 팔의 힘이 없어지며, 칼이 금시에라

★ 여러 분! 아래 그림들은 무엇하는 모양인지?

로 땅에 떨어질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을 본 적장은, 바로 이 때이라는 듯 칼을 높이 들고, 면의 머리를 향해 정면으로 내려쳤습니다.

앗! 그러나 면의 칼에 맥이 풀린 듯 보인 것은, 면이 일부러 꾸민 작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적장의 칼날이 번개처럼 내려 오자, 면은 선뜻 몸을 비키는 찰라, "으악" 적장의 왼편 가슴에는 면의 칼 끝이 깊이 깊이 찔리고야 말았습니다. 면의 칼날에 적장의 붉은 피가 흘러 내리고, 적장은 칼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푹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주위를 포위했던 적병들이 이 모양을 보자, 면에게로 달려들어 면의 칼 든 팔을 쳤습니다. 면의 오른 팔과 함께 칼이 땅에 떨어지자, 면의 왼팔이 다시 그 칼을 집어 휘둘러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칼은 면의 왼팔마저 내리 쳤습니다. 그리고 면의 머리도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쓰러졌던 적장은 겨우 눈을 뜨고 병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놈을 죽이진 말아라."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벌써 죽였습니다."

적장은 그 말에 놀란 듯,

"아까운 놈이었다."

하고 다시 숨을 몰아 쉬며,

"조선의 소년들은 참으로 적적하구나. 순신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훌륭하다.…… 너희들은 순신의 집을 습격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거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순신장군의 사랑하는 아들 면은, 17세를 일기로 아버지의 아들다웁게, 또 이 나라 소년의 기백과 명예를 끝까지 지켜 싸워 죽었습니다.

이 순신 장군이 아들 면의 전사를 알게 된 것은 그 후 사흘만이요, 장군은 꿈 속에서 면의 전사를 예감하였던 것입니다. 장군이 얼마나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였던가는, 그 꿈을 깨고 직정하던 심경이며, 전사의 소식을 접하고 애통해 한 장군의 일기(日記) 속에서 우리는 너무히 읽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싸움터에서 보내기에 아들을 앞에 앉히고 애무해 줄 겨를조차 없었던 장군이, 그 뒤를 맡기고 믿고 의지하려던 면을 잃은 가슴 아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다음의 일기 속에서 읽어봅시다.

"14일, 신미(辛未) 맑다. 4경쯤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살죽하여 개천에 떨어졌으나 넘어지지는 아니하였는데, 끝에 아들 면이 나를 붙들어 안으려는 모양 같았다. 깨어보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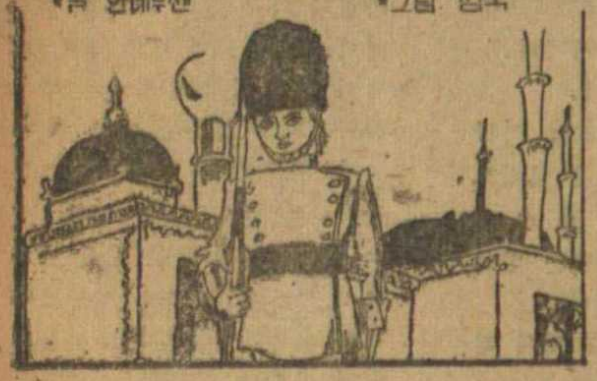
지녁에 천안(天安)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집의 편지를 전하였다. 떼어 보기 전에 벌써 골육이 먼저 통하여 심기가 황란하다. 겨우 겉봉을 떼어 보니 열의 편지인데, 의면에 "통곡" 이란 글자를 쓴 것을 보고, 면이 싸워 죽은 줄을 알고 아지 못하는 사이에 낙담하여 실성 통곡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같이 어질지 아니하신고.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떳떳하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변이 어디 있을까. 천지가 캄캄하여지고 백일이 빛을 잃는고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두고 어디로 돌아간고. 영기가 뛰어 났더니 하늘이 세상에 두시지 아니하심인가. 내가 지은 죄가 네 몸에 미침이냐. 내가 이제 세상에 있은들 장차 누구에게 의지하랴. 통곡할 따름이로다. 한밤을 지나기가 4년과 같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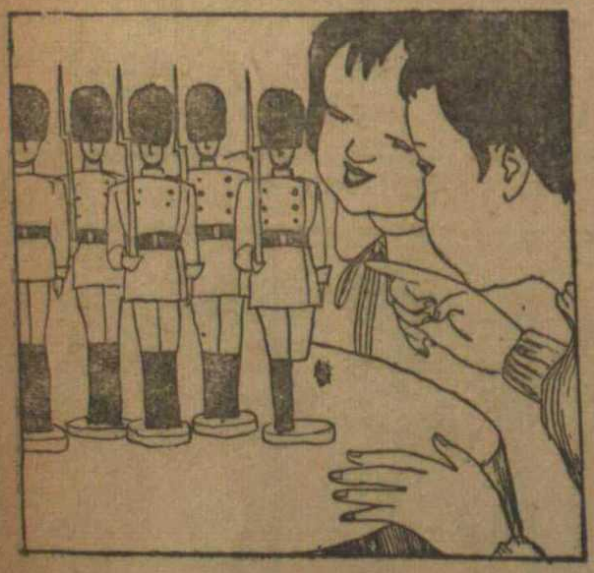
이 순신 장군은 이 일기를 쓴 지 1년 후인 무술년 11월 19일에 면을 죽인 적병을 죽이고, 아들의 뒤를 따라 장렬한 전사를 하였습니다.

해답을 보지 않고 맞추어 보십시오. (정 모르시면 46페이지에) ★

용감한 인형병정

글 안데르센 그림 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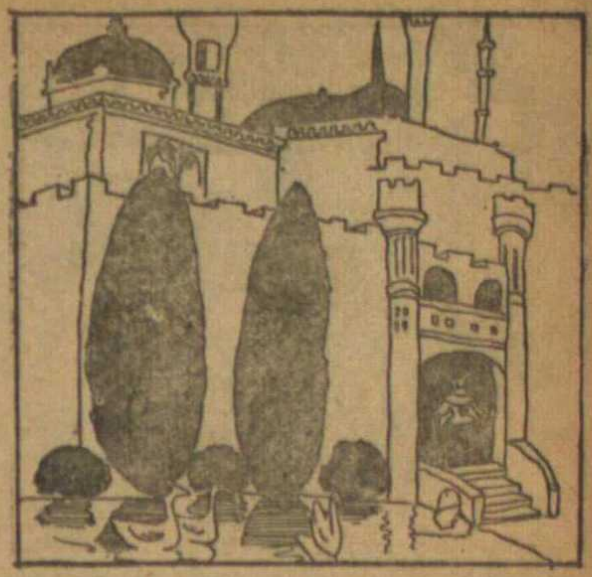
① 옛날에 스물 다섯 개의 인형 병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형제이었읍니다. 왜냐 하면 다 같은 헌 숟갈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들은 어깨에 총을 메고 똑바로 서다 보며 빨강이와 파랑이의 훌륭한 군복들을 입었었읍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은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든 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너무나 좋아서 손벽을 치면서 "병정!" 이라고 부르짖은 것이었읍니다.

② 인형병정의 장난감은 그 어린이에게 선물로 보내온 것이며, 그 아이는 한번 죽 늘어놓아 보이고 책상 옆으로 왔읍니다. 병정들은 젤쭉발이 하나만 빼놓고는 모두가 똑같이 생겼읍니다. 젤쭉발이 병정은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으며, 그때서 끝날 무렵에 녹인 물건이 조금 부족하였던 탓으로, 그 병정만은 한쪽 다리로만 곧곧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정은 더 유난히 눈에 띄었읍니다.

③ 인형병정들이 서 있는 책상 위에는 다른 장난감이 죽 널려 있었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을 끄는 것은, 에쁘고 조그마한 종이로 된 성이었읍니다. 조그마한 창 너머로 방이 보이고, 성 앞에는 많은 작은 나무들이 거울을 둘러 싸았는데, 거울은 아마 맑은 호수 셈인가봐요. 남으로 된 거위가 거기에 떠있고, 그림자가 비쳐 있읍니다.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것은 조그마한 아가씨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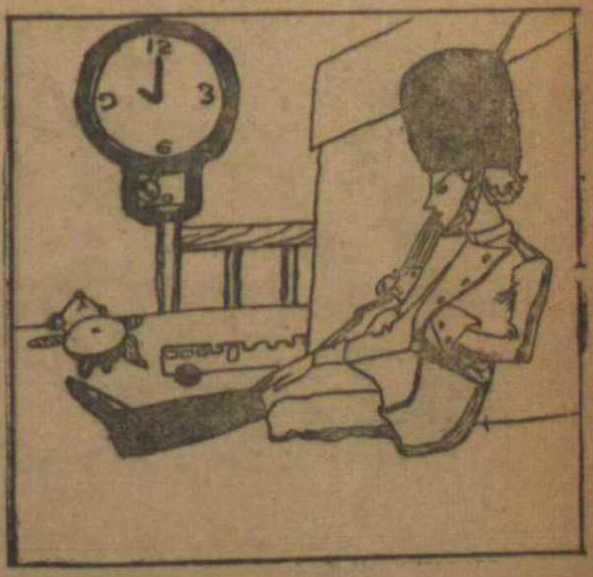
④ 아가씨 역시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깨끗한 모스링의 옷을 입고, 어깨에는 목돌이처럼 가늘고 푸른 리봉을 걸쳤읍니다. 그 리봉 앞에는 크기가 얼굴만 한 금빛으로 빤짝거리는 장미꽃을 붙이고 있읍니다. 그 조그마한 아가씨는 맨사아(춤추는 사람)이었으며, 두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높이 치켰던 까닭으로, 펄쭉발이 병정에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 아가씨 역시 자기처럼 펄쭉발인줄만 알았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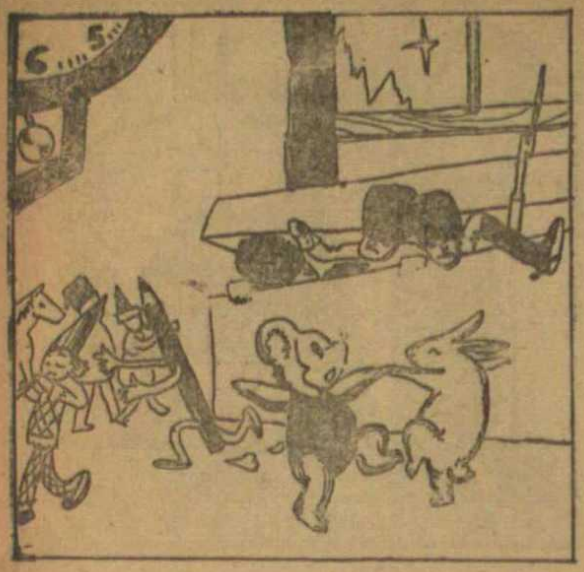


⑤ 그는 자기 아내로 삼았으면 싶었읍니다. "허지만 저 색시는 너무 훌륭하고, 또 성에서 사는데, 나는 종이갑에 ……게다가 스물 다섯 명이나 같이 살고 있으니, 그 색시가 이런데서는 살지 못할걸. 하여간 그 색시하고 친해지도록 하자."

그러고는 한쪽 다리로만 용하게 서 있는 예쁘장한 아가씨를 볼 생각으로, 책상 위에 있는 담배갑 뒤로 몸을 길게 높이었읍니다.

⑥ 밤이 왔읍니다. 다른 인형병정은 다들 갑 속에 들어 가게 되고, 집 안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로 갔읍니다. 그러며는 장난감들은 모여 들어서, 제가 곧 유희를 시작하고 서로 찾아 가고 장난하고, 또 무도회를 열고 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인형병정들은 갑 속에서 야단들입니다. 나가서 재미있게 놀고 싶었으나, 도무지 뚜껑을 열 수가 없읍니다. 호모까기는 개구리 뜀뛰기를 하고, 연필은 책상 위를 뛰어 다니곤 합니다.





⑦ 어떻게 머물었던지 카나리야가 잠이 깨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만 인형병정하고 그 병사아만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였읍니다. 그 병사는 두 팔을 벌리고 발 끝으로 섰는데, 병정이 한쪽 다리로 섰는 것에 못지않게 단단하였읍니다. 인형병정은 그 병사한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였읍니다.

⑧ 벽시계가 열 두시를 칩니다. 그러니까 담배갑 뚜껑이 "탕!" 소리를 내고 열리더니, 담배 대신에 조그마한 검정 마귀가 툭 튀어 나왔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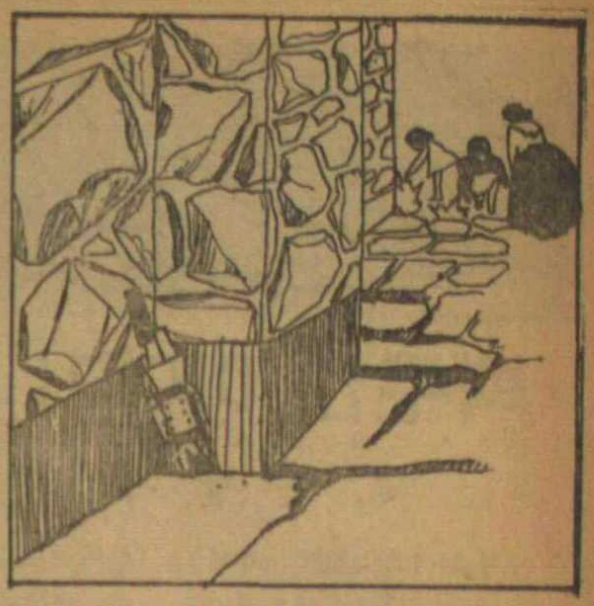
"인형병정!" 하고 그 마귀는 불렀읍니다.

"보무지 당치도 않은 생각은 그만하게나." 그러나 인형병정은 못들은체 합니다.

"좋아 좋아, 내일 두고 보지." 마귀는 이렇게 말하고 갔읍니다.

⑨ 아이들은 그 이튿날 아침에 오더니 병정을 창가에 놓았읍니다. 마귀가 한 짓인지, 또는 바람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문이 툭 열리더니 그만 인형병정은, 거꾸로 삼층에서부터 땅바닥으로 떨어졌읍니다. 아주 비참하게 떨어졌읍니다. 머리를 밀으로 모자와 칼은 둘 사이에 박고 한쪽 다리는 공중에 떴읍니다. 식모와 아이는 곧 내려가 찾았으나, 한번은 발견에 밟힐번도 하면서 결국 못찾고 말았읍니다.

⑩ 만약 "나 여기있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더라면, 모든 일은 잘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자존심이 강해서, 더구나 군복을 입은 이상에야 어찌 남에게 울리달라고 외칠 수 있겠읍니까? 얼마 안있어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 점점 더 빨라지더니, 소나기가 되었읍니다. 비가 그쳤을 때 지나 가는 아이들이 "야아! 저런데 인형병정이 있다. 그렇지만 배가 있어야 하겠는걸." 합니다.



⑪ 그래서 두 아이는 신문지로 배를 만들고 거기에 인형병정을 태워서 도랑에 띄네려 보냈읍니다. 그러고 손벽을 치면서 두 아이는 도랑 가로 뛰어 갑니다. 정말이지 어쩌면 도랑 물결이 그렇게도 빨리 흘러 갈까요. 또 어쩌면 물은 저렇게도 빨리 흘러 갈까요. 아까 비가 세찰하게 내리더니만……종이로 만든 배는 흔들흔들 하였으며, 어떤 때는 갑자기 빙빙 돌기도 하여, 인형병정은 간이 콩만해졌읍니다.

⑫ 그래도 그는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었읍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읍니다. 똑바로 총을 메고 있었읍니다. 벌안간 배는 하수도의 일부가 되어 있는 다리 밑으로 떠내려갔읍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필경 이는 그 마귀의 하는 것일게다. 그것은 그렇고……지금 저 아가씨가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더라면, 어두운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을텐데…" —계속—

백두산 이야기

홍 종 인

언젠가 "소학생"에 백두산과 천지(天池) 이야기를 썼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백두산에 다녀온 등산기(登山記)를 쓰기로 하고, 백두산에 관련을 가진 여러 가지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출발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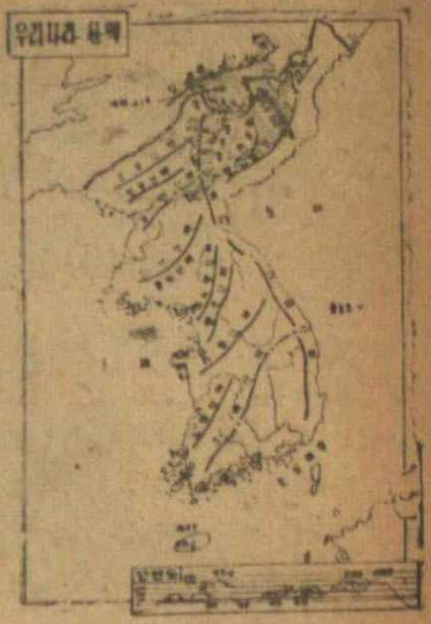
서울 출발은 7월 하순(1942년) 바로 23일 오후 함경선(咸鏡線) 열차이었다. 먼저 이 시기를 택한 것은, 여름 첫장마 때를 지나서, 한동안 조선반도는 전체로 비교적 날이 잘 개이는 때임으로, 등산에도 좋거니와 또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의 짧은 동안 한 때가, 백두산 여름철이 되는 까닭에, 식물이 번성하여 모든 화초가 만발하고, 온갖 나비나 벌레 같은 것도 이 때라야 가장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백두산 여름 등산이라면 이 시기를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즉, 이러한 등산하는 시기의 선택은, 곧 등산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여름 산이라면 그 자연(自然)이 가진 모습을 거의 남김없이 갖춰 살필 수 있다는데 주되는 목표가 있고, 따라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등산 중의 모든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계획했던 목적을 이루기도 비교적 쉬운 것이다.

그리고 백두산에 오르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뜻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생각할 것은, 백두산이 옛날부터 우리 국토와 민족을 표내는 단 하나의 뚜렷한 정신적 목표로 되어 있다는데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사람 사는 동네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산중의 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토 안에 있는 제일 높은 산으로, 그 독특한 위풍과 자연의 특수한 조건이 일찍부터 세계적으로 알리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도 안될 것 뿐 아니라, 겸하여 우리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의 산이라면 백두산에서 원 줄기가 뻗치지 않은 것이 없는만큼, 옛날부터 조선 민족은, 실로 백두산의 정기(精氣)를 타고 났다고도 일러온 것이다. 하기는 조선 사람은 태곳적부터 산을 위하는 품이 대단했지만, 특히 백두산을 거룩하게 여겨온 것도 그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고, 백두산 뿐만 아니라, 아무리 궁벽한 산간이건, 사람의 발을 붙이기 어려운 산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국토인 이상, 그 산 그 땅은 어떻게 생겼으며, 거기서는 어떤 귀한 것이 나고, 또 긴요한 무엇을 어떻게 재배할 수가 있을는지, 갖추 조사 연구해 들어야 할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당연한 책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즉, 내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인즉, 내 나라 내 국토가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도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깊은 산중으로, 또 높은 산악(山岳)으로 탐험(探險)을 겸한 등산(등반(登攀)이라고도 한다)하는 것은, 각별한 뜻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백두산 같이 인가와 아주 멀어져 있는 깊은 산중의 높은 산악을 택하여 등산한다는 것은,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첫째 각 개인의 몸이 건강해야 하고, 또 마음이 굳세야 한다. 산 속에서만 여러 날 동안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동(移動)하면서, 남의 힘을 빌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내 손으로 내 힘껏 각기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까닭에, 일행의 수효는 많건 적건 강력(强力)한 조직(組織)과 엄격한 규률과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산중의 생활을 위한 준비

로 말하면, 어떤 경우를 당해서든지 이겨 나아갈 수 있을만큼,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주 평지에서 하는 살림살이를, 가장 단출하면서도 평소에 필요없는 것까지, 빠지지 않고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준비 중에서도 보다 더 중한 것은 마음의 준비이다. 일행이 몇명이 되건 서로 책임을 분담하되,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서로 도움고 붙들어 나아가는 굳은 단결심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굳은 의지력(意志力)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등산가의 정신이다.

나도 백두산 등반대에 참가하리고 할 때, 먼저 생각한 것은 건강과 마음의 준비이었다. 하지만 백두산 영봉(靈峰)의 그리운 정열을 참지못하여 참가키로 작정한 그 때부터, 건강에 대하여 각별히 조심하면서 한 열흘 여러 가지 등산비품 준비에 바빴다. 먼저 장비(裝備)를 튼튼히 해야 한다. 복장과 구두가 튼튼하고도 경쾌해야 하고, 또 여름이라고 하지만, 높은 산이면 아침 저녁과 밤새로 몹시 추워지기 때문에, 아래 위 복장도 두툼한 것이 필요하고, 춥지 않게 잘 수 있도록 담요나 세틸을 넣어서 자루 같이 만든 요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영어로 "스리핑 백" 독일어로 "슈라프 작"이라고 한다.) 속 옷도 몇벌 예비가 있어야 하고, 심지어 옷이나 구두가 해어지면 꿰맬 실과 바늘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식량도 간편하고 영양있는 것으로 하고, 식사할 그릇과 기타 자료도 부족없을 정도로 장만해야 한다. 개인용의 장비에는 무엇보다도 우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체용의 천막과 마찬가지로 절대 필요한 것이다. 또 약품도 적당히 준비해야 하고, 일행 중에 의사도 있어야 하지만, 대략한 경우에 약쓰는 법쯤은 각기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 등산가로서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준비하면 단체로 준비한 것, 개인으로 준비한 것 대단한 짐이 된다. 그러나 짐이 무거워지면, 그만큼 행동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대로 반드시 긴절한 것만을 위주하여 준비하되, 나중에 짐을 꾸리는 것만도 등산가의 큰 일이 된다.



이같이 하여 우리가 서울역을 떠날 때, 등에 짊어졌던 각 개인의 "륙상" 만해도, 모두 사오 관은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거운 륙상을 지고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엉기엉기 걸어 나서기만 하면, 벌써 몸은 도시의 번잡을 떠나, 대자연의 웅대하고 장엄한 품 속에 안긴듯 마음은 가볍고 저절로 유쾌해만지는 것이, 등산가들의 이를데 없는 출발 그 시각의 감상이라고 할 것이다.

—계속—

동요 맛보기

(5) 박 영 종

이 달은 어머니를 읊은 노래를 모아 봅시다.

어머니는 참으로 살아 계시는 하느님이신지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어머님이시지.

어머니 가슴은
잠 드는 가슴
얼굴만 묻으면
잠이 오지요.

어머니 가슴은
꿈 나는 가슴
머리만 대면은
꿈이 오지요.

어머니 가슴은
비단 솜 가슴
고단해 누우면
포근합니다.

(어머니 가슴 • 박 윤종)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얼굴만 묻으면, 그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만 새근새근 잠이 드는 가슴,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얼굴만 묻으면
잠이 오지요

얼마나 큰 평화(平和)가 깃드린 곳입니까!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들을 잠재워 주는 곳만 아닙니다.

어머니 가슴은
꿈 나는 가슴

다시 우리에게 꿈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그 곳에서 쉬며, 쉬는 동안에 꿈을 얻어 갑니다. 꿈을 얻는 것은 용기를 얻는다는 뜻이지.

그러고, 다시

고단해 누우면
포근합니다.

또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그 곳이 어머니 가슴입니다.

끝 없는 평화와 한량 없는 꿈(용기)과, 그러고 편안을……그러니 세상의 행복을 다 품으신 어머니 가슴이시지.

보고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건
얼었다고 흉 보는
울엄마 얼굴

듣고 듣고 들어도
듣고 싶은 건
언제 언제 언제나
엄마 목소리

(엄 마 • 최 수복)

그 아기 어머니는 어릴 때 마마를 해서 얼굴 얼굴 얽으시었지. 그래서 아이들이

"곰보딱지
곰보딱지"

하고 놀리었다오. 아무리 놀리어도 그 아기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노래를 오래 전에 한번 보아 대번에 외어 버리고, 잊어지지 않는 것은 첫걸입니다.

보고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건

곰보스럽게 얽었다고 흉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달님과 같아서, 보고 나도 또 쳐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어머니 곁을 떠나 여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느라 떠나 있게 되면, 어쩐지 늘 생각되는 이 노래입니다.

듣고 듣고 들어도
듣고 싶은 건

언제 언제 언제나 엄마 목소리는 노래로서는 좀 어색한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나 목소리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늘 옆에 있으면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언지 모르게 든든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 어머니 곁을 떠나 보면, 이 노래가 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큰 어머니의 사랑 안에 우리는 자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으나 어머니의 목소리며 웃음이며, 우리를 늘 살피시는 그 어지신 눈 가운데 우리는 자라고 있지.

누구 키가 더 큰가
어디 한 번 대보자

발을 들면 안된다
올라 서면 안된다

똑 같구나 똑 같애
내일 다시 대보자
(키대보기 • 윤 석중)

동무하고 키대보기 시합을 걸었읍니다.

동무라는 것이 바로 뒷집 뚤뚤입니다. 아기와는 같은 일곱 살의 동갑네이지. 그래서 심부름이라도 가는 누나를 일부러 불러 세워 놓고,

"자아 내 키가 더 크지?, 봐줘."하고 뽐냅니다. 그러면 누나는 방긋 웃고

"둘이 꼬옥 같구나."

하지. 사실은 뒷집 뚤뚤이가 좀 작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기는

"어디, 내일 보자."

합니다. 속으로 오늘 저녁에는 뚤뚤이보다 밥을 더 많이 먹고, 오늘 밤에 이만큼 크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밤에는 좀 더 맛있게 밥을 먹고 어머니 품 속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의 사랑 속에 온몸과 마음을 처억 맡기고 편안

☆얼지 않는 물☆

잇과 시간에 선생님이

선생…액체 (液體) 로 얼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생도…끓는 물입니다.

선생…그럼 소 가죽은 무엇에 쓰느냐?

생도…그것은 소 몸둥이를 싸는데 쓰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도 기가 마켜 잠자코 계시더랍니다. (서울 협성교 6년왕 은식)

☆전 차☆

북순이…어머니 전차에도 말을 맸으면 좋겠에요.

어머니…왜?

북순이…말을 안매고도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 말을 매면 얼마나 빨리 전차가 달

밀까요? (서울 매동교 3년왕 경식)

☆원숭이 얼굴☆

동물원에서

귀동이…아주머니 원숭이 얼굴이

꼭 아저씨 얼굴 같지요?

아주머니…얘 그런 말하면 못쓴다.

귀동이…괜찮아요. 원숭이야 뭐 알아 듣나요. (경기 수색교 5년 권 오영)

재미있는 ★ 그림 글자

그것처럼 자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쪽을
보고 자면
아기도 이쪽을
보고 자고

엄마가 저쪽을
보고 자면
아기도 저쪽을
보고 자고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은
베개만 옆에다
놓고 자고

(아기 잠 • 윤 석중)

아기는 마치 햇님을 따라 도는 해바라기 꽃과 같지. 만일 엄마가 햇님이시라면, 어머니가 이쪽을 보고 자면 아기도 용하게도 살그머니 이쪽으로 돌아 눕고, 엄마가 저쪽을 보고 자면, 아기도 어느결에 살그머니 돌아 눕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고 있는 아기라도 자기 옆으로 돌아 눕도록 하는 무슨 힘이 있을까?

참 굿한 젖 냄새!

꿈에서도 듣는 따뜻한 목소리!

참으로 무언지 모르게, 어머니는 그냥 따뜻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용히 안아 주시는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보오 미나리 장수!
여보오 쑥갓 장수!"
엄마가 엄마가 장수 부르는 소리
그 소리두 듣기 좋구요

"귀남아아! 귀분아아!
어여 물와 맘마 먹어라!"
엄마가 엄마가 우리 부르는 소리
그 소리두 듣기 좋구요

"젖 잘 먹고 말 잘 듣고
잘도 자네 자장자장"
엄마가 엄마가 애기 재는 소리
그 소리두 듣기 좋구요

(엄마 목소리 • 윤 석중)

세상에서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가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만큼 정다운 것은 없읍니다.

어머니가 부르실 때는 내 이름은 한결 부드럽고 정다워집니다.

어머니가 부르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이름이 귀한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귀남아아."

멀리 들 가에서, 또는 골목 안에서,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혹은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저절로 더워 오는 것입니다. (계속)

☆발 견 과 발 명☆

아 루 미 뉴 움

아루미뉴움은 지금은 쓰레기통에도 굴러 다니게를 흔한 것이지만, 50년 전만 해도 아주 얻기 어려운 귀한 것으로, 금이나 백금보다도 값이 더 비쌌읍니다. 이 아루미뉴움을 만드는데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독일의 웨헬러라는 학자로 1845년 때입니다. 처음엔 겨우 공알만한 것 밖에는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한 학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도 내 놓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 가지로 더 연구하여 차차 많아지게 되어 값도 오늘날과 같이 싸졌읍니다.

이 아루미뉴움에 대하여 한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것은 불란서 임금 나폴레옹 삼세(三世)는, 아루미뉴움의 가벼운 것을 이용하여, 투구와 갑옷을 만들 재료로, 학자들에게 많이 만들라고 명령하였으나,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많이 만들 수 없는데야 어찌했읍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임금은 자기 옷의 단추와 식기(食器)에 사용했을 뿐이었고, 특별한 손님에게만 그 그릇을 내놓았지, 다른 손님에게는 금이나 은그릇을 내놓았다 하니, 그 때에 있어서 얼마나 아루미뉴움이 귀하였던가를 족히 엿볼 수 있읍니다. 1855년 파리(불란서의 수도) 박람회에 처음 아루미뉴움 덩어리가 출품(出品)되었을 때에는, 입금이 쓰는 관(冠)과 나란히 놓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루미뉴움은 바윗돌이나 모래 속에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지각(地殼)의 백분지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순수(純粹)한 것이 못되고, 바위나 모래에서 아루미뉴움을 꺼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게 비쌌던 것입니다.

이같이 비싸던 아루미뉴움이, 차츰차 같이 값싸게 되어, 여러 가지 기구(器具)에 쓰이게 된 것은, 미국 챠아레스 • 호오루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에서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후부터이며, 이는 1886년의 일입니다. 아루미뉴움이 발견된지 꼭 50년째 되던 1936년, 아루미뉴움을 만드는 방법이 발명된 2월 23일 기념일에는, 세계 각국 신문이 이를 보도하고 성대한 기념식도 거행되었읍니다.

챠아레스 • 호오루는 어렸을 때부터 화학실험(化學實驗)을 좋아하여, 공일 대학교 실험실(實驗室)에 놀러 갔었는데, 이 대학의 교수 쥬엔드박사는, 호오루청년이 이 화학공부에 열심인데 감탄하여, 대학에 입학한 뒤부터 자기 조수(助手)를 삼았읍니다. 어떤날 교수가 강의(講義)하는 중에 "아루미뉴움은 땅 속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만일 이것을 쉽게 꺼낼 수 있는 방법만 발견된다면,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자기도 큰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호오루는 옆에 앉은 동무에게, "내가 꼭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집 안에 조그마한 실험실을 짓고 열심으로 연구한 결과, 그 방법을 발견하였읍니다. 호오루는 몇 개의 아루미뉴움 단추를 만들어 가지고, 쥬엔드박사에게로 뛰어 갔읍니다. 그는 완전히 성공하였읍니다. 그 후 호오루는 큰 회사를 만들어 부자가 되었는데, 죽을 때,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가 다니던 학교와 전도협회(傳道協會)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오른쪽과 왼쪽

☆ 오 병 수 ☆

우리들의 손은, 얼핏보면 오른쪽과 왼쪽 양쪽 모양이 같은 것 같고, 크기도 별로 틀리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으나, 그러나 실제로 쓸 경우에는 오른 손으로는 쉬운 것을 쉬는데 편하고, 일을 하는데도 왼 손보다는 훨씬 마음대로 놀릴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겠읍니까?

시험삼아 우리들의 두 손을 견주어 비교하여 보면, 누구나 오른쪽과 왼쪽은 반드시 크기도 모양도 틀립니다. 코와 입 같은 것도 정면에서 자세히 보면, 역시 오른쪽 반과 왼쪽 반과는 똑같지 않고 얼마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쪽에 치우쳐 있읍니다. 웃을 때에 입모양도 제각기 버릇에 따라, 반드시 왼쪽이든지 오른쪽에 더 많이 기울어집니다.

또, 우리들의 얼굴 그것도, 오른쪽 반이 똑똑한 표정(表情)을 갖고, 아름다운 것이 보통이며, 왼쪽은 오른쪽보다 약간 둔한 것이 보통입니다.

시험삼아 사람 얼굴 사진을 걸이로 한 가운데를 반으로 갈라 그 오른쪽 반을 남기고, 거기에 그것의 오른쪽만을 뒤집어 박은 것을 붙쳐서, 얼굴 사진 하나를 만들고, 또 따로 왼쪽만을 이어서 얼굴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하여 보면, 그것은 아주 딴 두 사람의 얼굴 같이 달라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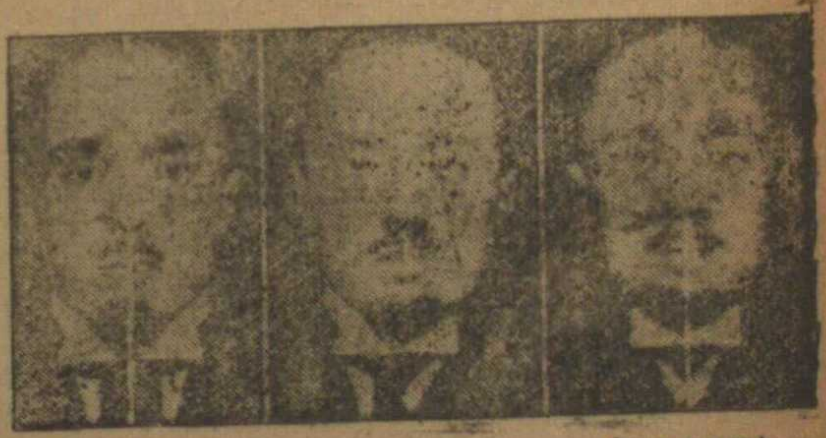
다음에, 다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왼쪽 다리가 길고, 오른쪽 다리가 짧습니다. 잘 주의하여 보십시오. 그러나 한쪽 발로 뛰거나 할 때에는, 대개 그 짧은 오른쪽 다리로 몸을 버티고 서며, 또 공을 찰 때에도 오른쪽 다리를 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른쪽 다리가 쓰기 좋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눈을 감고 똑바로 앞으로 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암만 똑바로 걸어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비뚤어져 버립니다. 대개는 오른쪽으로 빗나가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은 눈을 뜨고 걸을 때는 지도 모르게 앞에 목표(目標)를 정하고, 그것에 향하여 걷기 때문에, 좌우(左右) 모두 빗나가는 법이 없지마는, 지금 말한 것 같이 눈을 감고 걷는 경우라던가, 또는 사막(沙漠)이나 평원(平原)같은 데에서는 목표가 없으므로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심한 비바람이 부는 밤에, 문을 굳히 걸으면, 멀리 있는 등불이 점점 옆으로 옮겨지거나 뒤에 와 있거나 하여,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는 것도, 모두 양쪽 다리가 똑같지 않아서, 걷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손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왼쪽과 오른쪽은 틀립니다. 오른쪽 손을 더 쓰기 때문에 손등만을 합하여 보아도, 오른쪽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오른쪽이 더 굵고 튼튼합니다. 또 팔 전체를 비교하여 보아도, 오른쪽이 굳고 근육(筋肉)도 발달되어 있어서 힘이 더 나옵니다.

이상은 대체로 몸을 겉으로 본 바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만, 몸의 내부도 역시 그러합니다. 심장(心臟)의 위치(位置)같은 것도, 몸의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며, 위(胃)나 창자(腸)나 혈관(血管)같은 것도 좌우가 평균하



(오른쪽으로 만든 얼굴) (정말얼굴) (왼쪽만으로 만든 얼굴)

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러한 왼쪽과 오른쪽과의 차이는, 어찌하여 되어졌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러 의학자(醫學者), 철학자(哲學者) 인류학자(人類學者) 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붙이고 있읍니다.

먼저 그 좌우가 틀리는 것은 종교(宗敎)나 교육(敎育)이 원인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토인들 간의 종교나, 특히 마호멜교에서는 왼쪽이란 것을 퍽 싫어합니다. 문명국인이라도 왼 손이란 보기 싫어 해서, 어릴 때부터 왼 손은 될 수 있는대로 쓰지 않게 길러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쪽만 쓰게 되었읍니다. 낳을 때부터 왼쪽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습관하는데 따라 오른쪽을 잘 쓸 수 있게 변한 예도 있읍니다.

그런데 문화가 조금도 발달되지 않은 원시시대의 사람이 그린 그림 같은 것을 봐도, 왼쪽을 향한 그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른 손으로 그리면, 왼쪽을 향한 것이 그리기 쉬운 까닭이며, 그것으로부터 생각하여 보면 원시인이라도 역시 오른쪽 손이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학자가 있읍니다. 그것은 그러한 야만한 시대에는, 왕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언제나 부족(部族)끼리 전쟁만 하고 있었읍니다. 그 전쟁도 지금까는 말라, 한 사람끼리의 대항전(對抗戰)이고, 대부분이 한쪽 손에 막대기나 돌로 만든 창 같은 것을 가지고, 한 쪽 손에 돌로 만든 방패 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대하였으며, 오른 손을 잘 쓰는 사람은 오른 손에 창을 들고, 왼 손에 방패를 가지고 싸웠던 것인데, 왼 손잡이는 왼 손에 돌로 만든 창을 가지고, 오른 손에 방패를 가지고 덤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왼 손에 방패를 가지고 있는 오른 손을 잘 쓰는 사람은, 귀중한 심장(心臟)을 잘 막게 됩니다만, 왼손잡이는 방패를 오른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장(心臟)을 찔리우기 쉬우며, 그 결과 왼손잡이는 점점 죽어 버리고, 오른손잡이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생긴 유래에 대하여서는 아직 완전한 설명이 없으나, 요지음 눈과 손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자세히 연구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것에 의하면, 왼쪽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실험(實驗)에 의하여 왼쪽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라고 알아도, 자기는 왼손보다 오른 손을 잘 쓸수 있다고 고집을 세우는 사람도 있읍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생활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사람이 없을 때에는 왼손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 잘 보이나 왼쪽 눈이 잘 보이나를 조사하는 것은 큰 일 같으나,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이며, 손쉽게 실험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한 간쯤 앞에 있는 어떠한 작은 물체(物體)를 보고 있다가, 주먹만한 물건이나 또는 주먹을 앞에 내놓고, 상하(上下) 좌우(左右)로 알맞게 움직여, 그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쳐 보십시오. 그 때, 그 물체와 주먹과의 선(線)을 늘이면, 그 선은 보통 한쪽 눈을 지나 갑니다. 그 지나간쪽 눈이 다른 한쪽 눈보다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눈이 똑같이 잘 보이는 사람이면, 선은 양쪽 눈 한 가운데에 올

소년 과학 문답집 "왜" 속편

어떻게?

과학동무회 편찬
글 벗 집 발행

☆ 꼭 알아야 할 과학상식 100 가지를 모은 책.

☆ 자습, 학습, 입학 준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책.

책 값 130 원

총판매 문 장 각 서울 종로 2가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눈에도 왼쪽과 오른쪽과의 상위(相違)가 있고, 오른쪽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자연히 오른 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오른쪽 눈과 오른 손이 훨씬 발달하게 되고, 또 왼쪽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왼쪽 손을 쓰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습관상으로 또는 학교에서 교첨을 받으면 역시 오른 손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고로 왼손잡이 아해도, 어느 나이(年齡)가 되면, 모두 오른 손잡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갓난애기 때는 어떻겠읍니까? 낳은지 7, 8개월쯤 되서, 돌아 눕는데 오른쪽에 향하는 편이 많은가, 왼쪽에 향하는 편이 많은가, 또는 장난감을 주면, 오른 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편이 많은가, 왼 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편이 많은가, 자세히 살펴 보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직 그 이치는 잘 모릅니다만, 옛날부터 천재(天才)에는 왼손잡이가 많았다고 전하여 내려 옵니다. 유명한 화가(畫家)인 <u>호올바인</u>이라던가, <u>레오나르드•다•빈치</u> 같은 사람도 모두 왼손잡이였었다고 합니다.

☆ 아십니까? ☆

옷감의 재료가 되는 실은 누에 고치에서 뽑 내는 비단실을 위시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읍니다.

양모(羊毛)……멜실(洋服감)

면화(棉花)……무명실(광목 등)

목재(木材)……인조실. 인조견(人造絹)

잘룡……인조견과 같음.

유리……방음(防音)에 쓰는 옷감.

석면(石棉)……방열(防熱)에 쓰는 옷감.

동요

파 도

박 병 엽

바다 저쪽에는
누구가 있어
바다를 이렇게
대고 떼미나.

파도는 연달아
밀리어 들어
모래에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림 • 김 의 환

피노치오

(2)

디즈니 * 그림

작은돌 * 역음

법석떠는 바람에 제페토 할아버가 잠을 깨었읍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피노치오를 보자, 그만 빌떡 자리를 걷어차고 나왔읍니다.

"피노치오야, 네가 정녕 살았니?"

하고 제페토는 소리쳤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피노치오는 자못 점잖게 대답했읍니다.

제페토는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읍니다. 몹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아들, 내 아들, 귀여운 아들."

이렇게 외치며, 제페토는 고양이를 깨웠읍니다.

"바라, 뒤가로야, 피노치오는 내 아들이란다."

제페토는 금붕어를 깨웠읍니다.

"바라, 클레오야, 피노치오는 내 아들이란다."

그러고 나서 제페토는 음악상자 고동을 모두 틀었읍니다. 그러고 시계도 모두 틀었읍니다. 제페토와 뒤가로와 클레오와 떠미니는 목청을 도꾸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읍니다. 춤을 시작했읍니다. 그들은 너무나 좋아서 정충정충 뛰었읍니다.

노래 노래 불러라!

춤을 춤을 추어라!

그 작은 마을은 이제는 고요할 수가 없읍니다. 피노치오는 마치 살 사람과 같이 목숨을 얻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 ☆ ☆

3

여우와 도둑괭이

아침이 되었읍니다. 제페토할아버지는 피노치오를 흔들어 깨웠읍니다.

"자아, 인제 그만 일어 나거라. 피노치오야, 학교갈 시간이 되었단다."

피노치오는 들창 밖을 내다 보았읍니다. 아이들이 서넛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학교에 가는 길이었지요. 피노치오는 그 아이들 뒤를 대 섰읍니다.

"아니, 아니, 잠간만…잊어버린 것이 있다. 책을 잊었구나! 자아, 여기 네 책이 있으니 가지고 가려므나."

제페토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책을 내어 주었읍니다.

피노치오는 책을 들었읍니다. 그리고는 정충정충 뛰면서 노래하듯 말했읍니다.

"아버지, 다녀 오겠읍니다."

"오오냐, 잘 다녀 오너라."

뛰어서, 피노치오는 한길로 나갔읍니다. 제페토는 손을 흔들며 작별하였읍니다.

"공부가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마. 아무쪽록 착한 아이가 되

어디 피노치오야. 점잖은 아이가 되어라, 네 아들아."

하고 제페토는 소리쳤읍니다.

피노치오도 연해 손을 저으며 저으며 점중점중 뛰어 갔읍니다.

그 피노치오의 뒤를 귀뚜라미 찌미니가 따라 갔읍니다.

그 피노치오 뒤를 다른 것이 따라갔으니—그것은 속이 검은 간사한 여우 한 마리였읍니다.

또 뒤를 따른 것이 있으니—그것은 역시 속이 검은 간사한 도둑괭이 한 마리였읍니다.

여우가 손가락질 하였읍니다. 마침내 도둑괭이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 앞을 좀 보게, 저게 저게 무언지 알겠나? 인형일세, 살아 다니는 인형이란 말이야, 어때 군사하지 않아?"

"거 참 신통하고도 아릇하군. 살아 다니는 인형! 거참 신통하고도 아릇하군!"

도둑괭이도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읍니다.

여우는 다시,

"좋은 수가 있다. 저녀석을 데리고 가세. 아마 못가겠다고는 못할걸세. 아무렴 된 말인가. 제가 앙탈을 하면 별 수가 있나! 우리 저녀석을 데리고 가세."

하였읍니다. 도둑괭이는,

"건 데리고 가서 뭣허게?"

"이 친구야 갖다 팔면 되지 않나! 아, 저렇게 꿈틀꿈틀 살아 있는 인형을 자네나 내나 생전 보았더란 말인가? 돈을 무척 받을 것은 떼논당상이 아닌가? 하하하하……"

하고 속이 검은 간사한 여우는 크게 웃었읍니다.

"참 좋은 생각일세."

도둑괭이는 맞장구를 치면서,

"아무렴, 돈이 뚝아져 떨어올 것은 문제가 없겠네."

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속 거멓고 간사한 여우와, 속 거멓고 간사한 도둑괭이는 피노치오의 뒤를 바싹 쫓아 갔읍니다. 마침내 그들은 피노치오를 겝새게 붙들었읍니다.

"애, 너 어디를 가니?"

하고 슬쩍 좋은 낯으로 물었읍니다.

"학교에 간다누."

피노치오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읍니다.

"학교에?"

여우가 소리쳤읍니다.

"될 말이냐, 아예 학교엔랑 가지 마라. 극장엘 가자, 우리가 데려다 주지."

도둑괭이도 맞장구를 쳤읍니다.

"그렇구말구, 우리가 데려다 주마."

속 거멓고 간사한 여우는 흰 잇발을 내뵈고 껄껄 웃었읍니다.

"에 피노치오야, 넌 꼭 팔자가 극장엘 가야 될 상부르다."

피노치오는 말없이 여우를 바라보았읍니다.

"아무렴 그렇구말구, 넌 꼭 팔자가 극장엘 가야 될상부르다."

하고 도둑괭이가 맞장구를 쳤읍니다.

속 거멓고 간사한 여우는 다시 한번 껄껄 웃고는,

"피노치오야, 넌 참 오늘 재수가 좋다. 내일은

네가 아주 유명해지도록 해 주마."
도둑팽이도 덩다라서,
"그렇지, 오늘은 재수가 좋구, 내일은 유명해지구."
여우가 도둑팽이 말을 받아서,
"피노치오야, 넌 아주 멋쟁이야. 넌 금방 이름이 날 거다. 네가 연극을 한다면 아주 으뜸가는 배우가 될 거란 말야."

이번에는 도둑팽이가 그 말을 받아서,
"정말이다. 네가 연극을 한다면 으뜸가는 배우는 갈데 없다."
또 여우는 말합니다.
"에, 피노치오야, 내 말좀 들어라. 극장에선 곡예 같은 배우가 소용된단다. 너는 무대에 올라서야 돼. 빼어난 노릇이지, 네가 아주 무대에서 멋쟁이가 될걸."
도둑팽이가 덩다라서,
"멋쟁이면 이만저만한 멋쟁인가?"
여우가 또 한 마디 합니다.
"넌 아주 이름이 세상에 금방 퍼져서 야단법석일게다. 자아 어떠냐? 갈테냐?"
이렇게 연해 꼬이었읍니다.
마침내 피노치오는,
"가지. 어디 너희들을 따라 극장엘 가 볼까?"
피노치오는 좋아라 웃었읍니다. 속 거멓고 간사한 여우도 웃었읍니다. 속 거멓고 간사한 도둑팽이도 웃었읍니다.

오직 귀뚜라미 찌미늬만은 웃지 않았읍니다. 찌미늬는 얼렀읍니다.
"안된다, 피노치오야, 안돼, 가선 안돼."
그러나 피노치오는 찌미늬의 말을 듣지 않았읍니다. 도무지 귀도 기울이지 않았읍니다. 피노치오는 여우와 도둑팽이하고, 같이 웃고 시시대고 하였읍니다.
"극장으로 함께 가자."
피노치오가 말하자, 도둑팽이는,
"옳소. 지금 당장 갑시다."
하고, 여우는 크게 너털웃음을 웃고 소리쳤읍니다.
"대찬성일세, 어서 가세 극장으로!"

4

무대에 올라선 피노치오

찌미늬는 돌아서고 싶었읍니다. 그러나 문득 생각나는 것은 그가 약속이 있는 것이었읍니다. 언제나 피노치오 곁을 떠나지 않고, 피노치오의 동무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귀뚜라미는 여우와 도둑팽이와 피노치오의 뒤를 따랐읍니다.
이윽고 그들은 극장에 당도하였읍니다. 한 사내가 나타났읍니다. 그는 이름을 스트롬볼리라고 하는 이었읍니다. 그는 우뚝 서서 피노치오를 찬찬히 바라보았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하하하 웃었읍니다. 그리고는 피노치오를 손가락질하면서,
"살아 있는 인형이라? 재를 우리 극장에 두고 싶다."
하고 고함을 질렀읍니다.
이 때에 여우는,
"그게 바로 내 인형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팔지요. 그렇지만 값은 금돈 열잎 안에는 단 한잎도 덜해 드릴 수는 없읍니다."
도둑팽이도 곁에 있다가,
"그렇습니다. 아주 두둑히 내야 되지요."
이 말을 들은 스트롬볼리는
"그만 두어."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읍니다. 여우가,
"괜니 그러지 맙쇼. 저것은 어디 비할 데 없는 인형이니까? 그만한 값어치가 됩니다. 그래 저런 걸 마다시니 원..."
"그렇긴 그렇다. 내가 저런 걸 갖고 싶었다. 내가 차지하지."
스트롬볼리는 고함을 질렀읍니다.
여우가 연방 짖거리고, 스트롬볼리가 연방 악을 쓰고 하였읍니다. 여우는 끝끝내 금돈 열 잎을 달라 하였읍니다.
그러자 갑자기 스트롬볼리는 돈을 꺼내어 여우를 주었읍니다. 그리고는

"가라!"
하고 악을 썼읍니다. 스트롬볼리는 피노치오에게로 돌아섰읍니다. 집단제하고 피노치오를 그 큰 손으로 덤석 집어 올렸읍니다.

"피노치오, 네녀석은 인제 내 인형이다. 가자. 무대에 올라 서야 된다. 알겠지?"
하고 악을 또 썼읍니다.

피노치오는 그저 멀리기만 하였읍니다. 무어가 무언지 알 수가 없었읍니다.

"대관절 어쩌라는 셈이요?"
하고 간신히 물었읍니다.

"노래를 불러라. 춤을 추어라. 아니, 노래하면서 춤을 춰야 해!"

스트롬볼리는 말할 때마다 악을 씁니다.

피노치오는 하는 수 없이 힘 없는 다리를 무대에까지 옮기었읍니다. 속이 멀리고, 기가 막히고, 그만 간이 뒤집힐 것만 같았읍니다. 그러나 어쩌는 도리가 없었읍니다. 노래를 아니 부를달 수가 없었읍니다. 춤을 마다고 할 수가 없었읍니다.

피노치오는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하였읍니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노래하였읍니다.

춤추고 춤추고 춤추었읍니다.

피노치오는 참말 훌륭했읍니다. 두말 할것 없이 스트롬볼리의 인형을 통 털어도 이렇게 묘한 인형은 없었읍니다.

"노래 좀 더 해라, 피노치오야."
하고 사내 아이들이 졸라댑니다. 손벽을 치고 발을 구르고, 야단들이었읍니다. 도무지 쉬지를 못하게 하였읍니다.

"춤 좀 더 춰라, 피노치오야."

이번에는 계집아이들이 조르고 졸랐읍니다. 역시 손벽을 치고 발을 구르고 하였읍니다. 도무지 쉬지를 못하게 굴었읍니다.

"한 번 다시 노래를 해라! 쉬어서는 안 돼!"

스트롬볼리가악을 씁니다.

마침내 피노치오는 하는 수 없이 진력이나도록 노래부르고 춤을 추었읍니다.

"야아 참 너는 굉장하구나. 굉장 굉장빼적지군하다."

스트롬볼리는 소리쳤읍니다.

피노치오는 빙그레 웃었읍니다. 그러고,

"인제 난 집으로 갈테야!"
하였읍니다.

"집으로 가? 아아니 피노치오야, 여기가 네 집이지 뭐냐?"

스트롬볼리가 악을 썼읍니다.

"아냐, 우리 집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날 기다릴거야."

"피노치오, 네 들어 봐라. 네 집은 여기다. 너는 내 것야! 너는 내 곁을 떠나지 못해! 너를 데리고 멀며 멀리 갈테다, 알겠니?"

스트롬볼리는 그 억세고 우악스런 팔로 피노치오를 껴안았읍니다. 그는 창 가로 걸어 갔읍니다. 거기는 새장 하나가 매달려 있었읍니다. 슬멋이 새장을 내리서 문을 열더니, 피노치오를 그 속에 가두고 철격 문을 잠갔읍니다.

"네 이놈, 네가 어디 들어 앉았나 똑똑이 보아 둬라. 너는 새장 속에 들어 있어! 이게 바로 네 집이다."
하고 크게 너털웃음을 웃었읍니다.

(계속)

빗 모르고 끌려 간 피노치오. 꼼짝 없이 갇혔읍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차례를 기다리십시오.

소 년 삼 국 지

少年三国志

(13)

박 태 원
그림·김 기 창

제 10 장 삼 고 초 려 (三顧草廬)

一. 와 룡 강(臥龍岡)

서 서가 조 조에게로 간 뒤, 현 덕은 곧 예물(禮物)을 갖추어 남양으로 가서 제갈 공명을 찾아 보려 하였다. 그 때 문득 사람이 들어 와 보하되, 한 선생이 밖에 와서 찾는다고 한다.

현 덕이 곧 나가서 보니, 찾아온 이는 뜻밖에도 수 경선생 사마 휘다.

후당으로 맞아 들여, 손과 주인이 자리를 나누어 앉자, 사마 휘는 말하였다.

"서 원직(서 서)이 여기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 온 것이요. 한번 만나보게 하여 주오."

그러나, 현덕이 서 서가 이미 조 조에게로 가고 없다 말하자, 수경은

"아, 원직이 그만 조 조 꾀에 속았구나!"

하고 한숨을 짓는다.

현덕이 마음에 고이하여,

"아니, 어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수경은 대답한다.

"서 원직의 대부인(大夫人)은 심히 어진 분이라, 설혹 조 조의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편지를 보내서 아들을 부를 사람이 아니지요."

현덕은 놀라기를 마지 않으며 다시 그에게 물었다.

"원직이 떠나면서 남양 제갈 공명을 천거하더군요. 대체 그 분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명은 항상 자기 몸을 관 중·악 의에게 견주고 있거니와, 참으로 그의 재주야 헤아릴 길이 없지요."

그 때 마침 관 운장이 곁에 있다가 한마디 묻는다.

"관 중이나 악 의로 말씀하면, 모두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명인(名人)으로, 공업(功業)이 일세(一世)를 덮었다고 하겠는데, 공명이란 사람이 대체 재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 몸을 그 두 사람에게다 비하며 드는 것은 좀 과하지 않겠읍니까?"

그러나 사마 휘는 도리어 허허 웃고 말한다.

"실상은 과하지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 공명의 재주란 참으로 세상에 드문 것이야."

수경선생은 말을 마치자, 서서히 섬돌을 내려 서며 문득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아깝다, 아까워! 공명이 주인은 얻었다마는 때는 얻지 못하였고나!"

그 이튿날 현덕은 관 우·장 비와 함께 두어명 종자를 데리고 남양을 찾아 갔다.

밭 가는 농부에게 물으니, 남

쪽에 보이는 큰 언덕이 와룡강(臥龍岡)이요, 그 언덕 아래 서 있는 한 채 초가가 바로 제갈선생의 계신 곳이라 한다.

마침내 찾아 이르러, 현덕이 말에서 내려 몸소 싸리문을 두드리니, 안으로서 한 동자가 나오며,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다.

현덕은 말하였다.

"선생님 계시나? 유 비가 뵈오러 왔읍니다고 여쭈어라."

그러나 동자는 대답한다.

"선생님은 조금 전에 나가시고 아니 계십니다."

"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느냐?"

"가시는 곳을 정하지 않고 다니시는 터이라, 알 길이 없읍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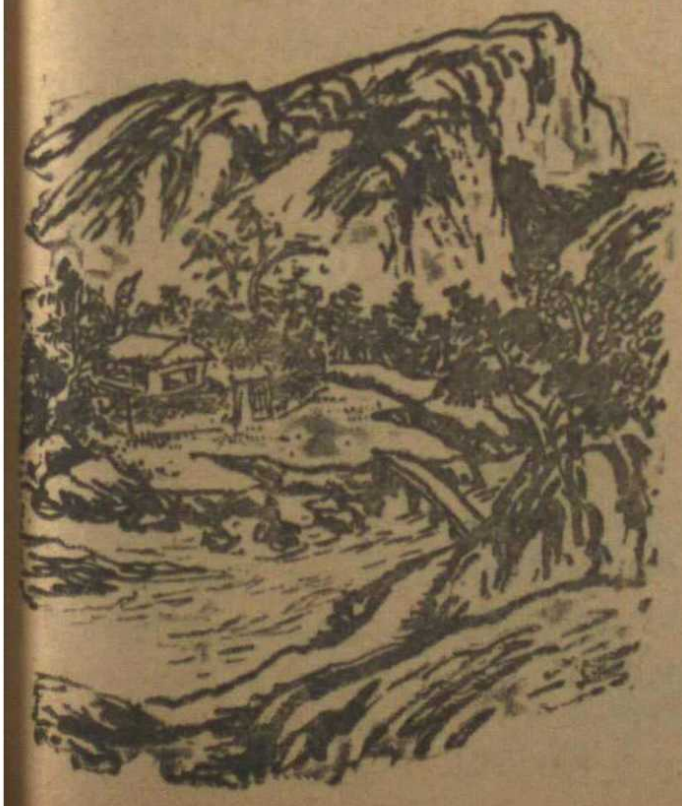
"그럼 언제쯤이나 돌아 오시느냐?"

"그것도 일정하지가 않아, 한번 나가시면 삼사일만에 돌아 오실 때도 있고, 또 호옥십여일이 되시는 때도 있읍니다."

현덕은 마음에 실심하였으나,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돌아 오시거든 유 비가 다녀 갔읍니다고 여쭈어라."

한마디 동자에게 당부하고, 다시 말께 올라 돌아 오며 그곳 경치를 두루 살피어 보니, 과연 산은 높지는 않으나 아름답고, 물은 깊지는 않으나 맑고, 땅은 넓지는 않으나 편편하고, 숲은 크지는 않으나 무성하고, 잣나비와 두루미가 서로 동무가 되며, 솔나무와 잣나무가 함께 얼리어, 완연(宛然)한 별천지(別天地)요, 결단코 인간세계(人間世界)가아니다. 현덕은 취한 듯이 한참을 돌며 보며 차마 떠나지 못하다가, 저물게야 신야로 돌아 왔다.



며칠 지나, 사람을 남양으로 보내서 알아 보니, 와룡 선생이 돌아 와 집에 있다고 한다.

현덕이 곧 말에다 안장을 채우라 하자, 장 비가 나서서 한마디 한다.

"그까짓 촌놈을, 무얼 형님께서 몸소 가보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아무나 한사람 보내서 불러 오면 그만이죠."

현덕은 꾸짖었다.

"풍명으로 말하면 지금 세상에는 짝을 구하기 어려운 큰 인물이야, 사람을 시켜 불러다 보다니, 그게 천번이나 한 수작이냐?"

즉시 말을 타고, 관우, 장비와 더불어, 현 덕은 두번째 공명을 남양으로 찾아 갔다.

때마침 깊은 겨울이다.

무섭게 추운 날씨에 붉은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얼마 가지 않아 북풍이 몰아치며 함박 같은 눈이 쏟아진다.

눈을 무릅쓰고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와룡장(臥龍莊)에 이르자, 현덕은 문을 두드리고 동자에게 물었다.

"선생이 오늘은 댁에 계시나?"

"네, 지금 초당(草堂)에서 글을 읽고 계십니다."

현 덕이 기별을 마지 않으며 동자를 따라 중문 앞에 이르니, 안으로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어 나온다.

현덕이 곧 문 틈으로 엿보니, 초당 위에 한 젊은 사람이 화로를 끼고 앉아서 글을 읽는다.

현덕은 그가 글을 다 읽고 나기를 기다리어, 초당으로 올라가서 예를 베풀고 말하였다.

"제가 선생을 흠모(欽慕)한 지 이미 오래나, 연분이 박하여 저번에도 모처럼 뵈오러 왔다가 그대로 돌아 갔었읍니다. 오늘 풍설(風雪)을 무릅쓰고 나선 보람이 있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과연 이만한 다행이 없읍니다그려."

그러나, 그 젊은이는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를 하며,

"유장군이시지요? 집의 자근형을 보시러는게 아니십니까?"

하고 말한다.

현덕은 의아하여 물었다.

"그럼 선생도 와룡이 아니시요?"

그는 대답한다.

"네. 저는 와룡이 아니라, 와룡의 아우 제갈 균(諸葛均)입니다. 저희가 본래 삼형제로서 맏형은 제갈 근(諸葛瑾)이니, 지금 강동에 가 있고, 공명은 곧 저의 자근형입니다."

"그래 와룡이 지금 안계시요?"

"어제 친구와 서로 언약하고 놀러 나갔읍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시겠소?"

"모르지요. 혹 배 타고 물에서도 놀고, 혹 산 속으로 중도 찾아 보고, 혹 마을로 내려 가서 벗과 바둑도 두어, 매양 노는 곳이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도무지 간 곳을 알 길이 없읍니다."

현덕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지었다.

"내가 그래 이렇게도 연분이 박하단 말인고? 두번을 와도 선생을 못뵙고 가니…"

제갈 균으 마악 차를 올리려고 할 때, 마침내 장 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하였다.

"선생이 안계시다니 그럼 그만이서 돌아 가시죠."

"모처럼 온 터에 어찌 이대로 돌아간단 말이냐?"

"하지만, 또 더 있어 보면 뭘합니까? 풍설이 이렇듯 대단하니, 어서 그만 돌아가십시다."

"잔말말고 가만히 좀 있거라."

현덕은 장 비를 꾸짖은 다음에, 제갈 균에게 종이와 붓을 빌어, 한장의 편지를 초하였다.

그는, 그 동안 두번이나 찾아왔다가 그대로 돌아간 섭섭한 심사를 말하고, 다음에, 부디 자기를 도와 천하를 바로 잡고 백성들을 건지도록 하여 달라 청하고, 끝으로 다시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뵈오러 오겠노라 말하였다.

편지를 써서 제갈 균에게 맡기고 현덕이 밖으로 나오니, 제갈 균은 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한다.

현덕이 다시 은근한 뜻을 말하고 말께 올랐을 때, 곁에 섰던 동자가 손으로 저편을 가리키며,

"노선생(老先生)께서 오시는군요."

한다.

현덕이 그 집을 바라보니, 머리에 털모자 쓰고, 몸에 어우털 갖옷을 입은 이가 나귀를 타고 다리를 건너 오는데, 한명 청의동자(靑衣童子)는 술 담은 호리병을 손에 들고 그 뒤를 따른다.

현덕은 그가 곧 와룡이리라 하여, 분주히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가 예를 베풀고 말하였다.

"이 추운데 어디를 갔다 오십니까? 유비가 기다려 뵈십지 오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도 역시 와룡은 아니었다. 그는 와룡의 장인 되는 황 승언(黃承彦)이라는 사람이다.

현덕은 그에게 물었다.

"서랑(婿郞)을 혹 보시지 못하셨읍니까?"

그러나 노인은, 자기도 지금 공명을 보러 오는 길이라고 말한다.

현덕은 그와 작별하고 풍설이 크게 일른 속을 신야로 돌아 오며, 몇번인가 와룡강을 돌아보고 울적한 심사를 억제할 길이 없었다.

二. 초 당 (草堂)

현덕이 와룡강에서 돌아 온 뒤로, 흐르는 세월이 물과 같아서, 어느덧에 겨울이 다 가고 봄이 되었다.

공명을 두번 찾아 갔다가 두번 다 못만나고 돌아 온 현덕은, 다시 길일(吉日)을 가리어 목욕재계하고 예물을 갖추어 세번째 와룡갈을 바라고 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러나 장비는 물론이요, 관우도 그것을 마음에 탐탁히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래 그는 곧 들어 가서 현덕을 보고 간 하였다.

"형님께서 두번이나 몸소 찾아 가셨으면 그 대접이 지나치게 후하다 하겠는데, 제갈 량이가 끝끝내 몸을 피하고 만나 뵈오러 안하는 모양이, 제가 공연한 이름만 났지, 실상 배운 것이란 없는 까닭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을 형님은 종시 깨닫지 못하시고 또 보러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현덕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공명은 참말로 어진이다. 그를 만나 보려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너는 모르느니라."

관우는 물러 갔으나, 이번에는 장비가 또 나섰다.

"형님이 그건 잘못 생각이십니다. 그까짓 촌놈을 무슨 어진 사람이라고 그리십니까? 이번에는 형님께서 일부러 가실 것도 없고, 만약 불러서 오지 않거든, 제가 새끼 한오리 들고 가서 그대로 묶어 가지고 오겠읍니다."

현덕은 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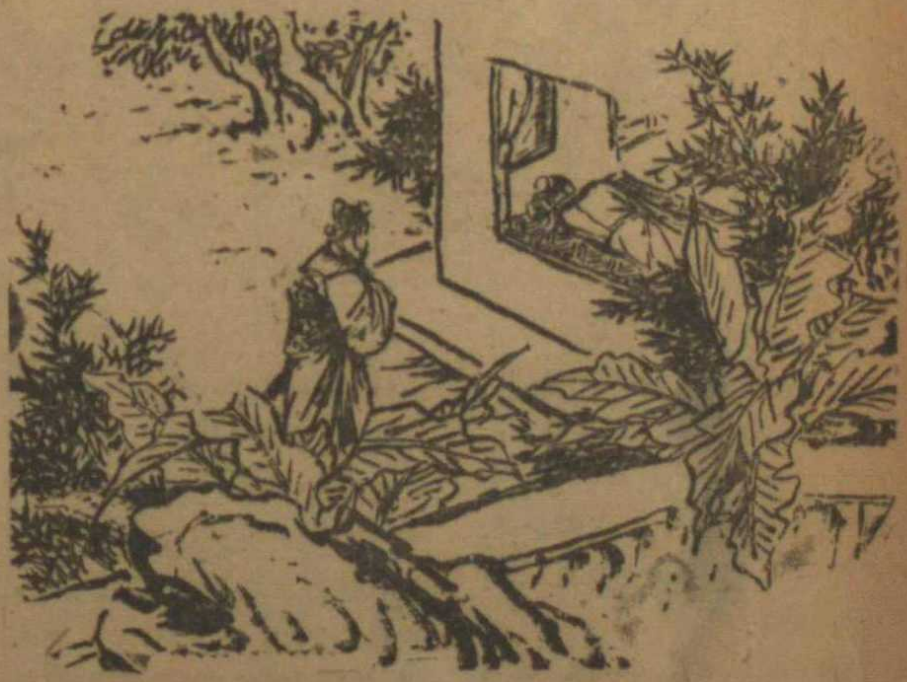
"옛날 주문왕(周文王)께서도 어진이는 심히 공경하셨느니라. 그러한 터에 어찌 너 같은 놈이 이렇듯 무례하단 말이냐? 이번에는 너는 따라 오지 마려라. 내, 운장하고만 갔다 오겠다."

그러나 장비는 웃고 말한다.

"어차피 두분 형님께서 가신다면야, 저만 어떻게 빠지겠읍니까?"

현덕은 재삼 당부하였다.

"네가 기어코 같이 가겠다면



데리고는 가겠다마는, 행여나 실례가 있어서는 아니되느니라."

장 비는 쾌히 응하였다.

와룡강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서부터 세 사람은 말에서 내려 걸었다.

그들이 서서히 앞으로 나아갈 때, 마침 저편으로서 제갈 균이 걸어 온다.

현덕이 황망히 앞으로 나가 공명의 일을 물자, 제갈 균은,

"불저녁에 돌아와 지금 집에 있읍니다. 장군께서 오늘은 만나 보시게 되셨읍니다."

한마디 일러 주고는 저 갈대로 가버린다. 찾아가 보니 와룡선생은 집에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러 나온 동자의 말을 들어 보니, 선생은 지금 초당에 누어 잠이 깊이 드셨다 한다.

"그러면 내가 왔단 말씀을 아뢰 선생께 어루지 마라라."

현덕은 동자에게 분부하고, 다시 관우와 장비에게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라고 이른 뒤에, 자기 혼자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 갔다.

현덕이 혼자서 안으로 걸어 들어간지 어느덧 반나절이 지났다.

그래도 안으로서는 아무러한 기척이 없다.

관 우와 장 비가 마음에 의아하여 들어가 보니, 초당 위에가 높지기 누어서 공명의 잠은 그저 깊은데, 현덕은 섬돌 아래가 그대로 손을 맞잡고 서서, 오직 공명이 잠을 깨기만 기다리고 있다.

장 비는 벌컥 성을 내었다.

"원, 저 선생이란 자가 저렇게 거만할 데가 있단 말이요? 우리 형님을 뜰 아래다 세워 놓고 저는 그저 모른체 하고 잠만 자니…, 내 어디 뒷결으로 가서 불을 좀 질러 봐야지. 어디 그 때도 제가 코만 골고 안일어나나…"

실례는 그를 현덕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관 우에게 명하고, 문득 초당 위를 바라 보니, 마침 선생은 몸을 뒤치며 모으로 돌아 눕는다. 이를 보니 동자는 앞으로 나가 깨우려 하였으나, 현덕은 손을 저어 제지하고, 다시 한시경이나 가까이 그곳에가 선채로 기다렸다.

마침내 공명은 잠을 깨었다.

잠을 깨자, 자리에 누운채 시(詩)한 수를 읊고 나더니, 그는 고요히 눈을 들어 동자를 불아 보고 묻는다.

"누가 찾아 오시지나 않았더냐?"

"유장군께서 벌써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웨 진작 나를 깨지 않고…, 내 잠간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 입고 나오마."

후당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한참만에야 공명은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나와서 손을 맞는다.

현덕이 눈을 들어 보니, 공명의 신장이 팔척이요, 얼굴은 관옥(冠玉)같고 머리에는 윤건(綸巾)을 썼으며, 몸에는 학창의(鶴氅衣)를 입어, 바로 신선(神仙)을 대하는 듯 싶다.

현덕은 공손히 예하고 말하였다.

"보잘 것 없는 이 사람이 선생의 대명(大名)을 듣자온지는 이미 오래였읍니다. 세일(歲前)에 두 차례나 뵈오러 왔다가 못뵈옵고, 두어자 적어

올리고 갔었는데, 선생께서는 모셨는지요?"

공명이 황망히 답례하고, 손과 주인이 서로 자리를 나누어 앉자, 동자가 나와서 차를 올린다.

공명은 현덕에게 차를 권하고 나서 말하였다.

"주시고 가신 글로, 장군께서 백성을 생각하시고 나라를 근심하시는 마음은 잘 알았읍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나이 어리고 재주가 적어서, 장군께서 모처럼 이렇게 찾아 주신 뜻을 보답하지 못하겠으니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려." 현덕은 말하였다.

"수경선생과 서 원직의 말이 어찌 한 때 지렵은 수작이겠읍니까? 선생께서는 부디 겸사(謙辭)마시고 좋은 말씀을 내려 주십시오."

"수경이나 원직은 세상의 높은 선비입니다마는, 이 사람이야 그저 산 속에 숨어서 밭이나 갈고 지내는 농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천하 정세(情勢)를 논하겠읍니까?"

"대장부가 세상을 건질 재주를 품고 있으면서 부질없이 산속에 파묻혀 늙다니, 그게 될 말입니까? 선생께서는 부디 천하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명은 그 말에 대답이 없다. 현덕은 다시 일어나 그에게 절하고 청하였다.

"제가 비록 이름이 없고 덕이 박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선생께서는 버리지 마시고 부디 산에서 나오시어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래도 공명은 쉽사리 응낙하지 않는다.

현덕은 마침내 울며 청하였다.

"만약 선생께서 끝끝내 아니 오신다면, 저 불쌍한 창생(蒼生)들을 장차 어찌하여야 좋단 말씀입니까?"

줄을 지어 흐르는 눈물에 옷깃이 흠뻑 젖는 것을 보자, 공명은 현덕의 청하는 뜻이 매우 간절한 것을 깨닫고 마침내 응하였다.

"장군께서 그처럼이나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재주는 없어도 삼가 견마(犬馬)의 수고를 다하여 보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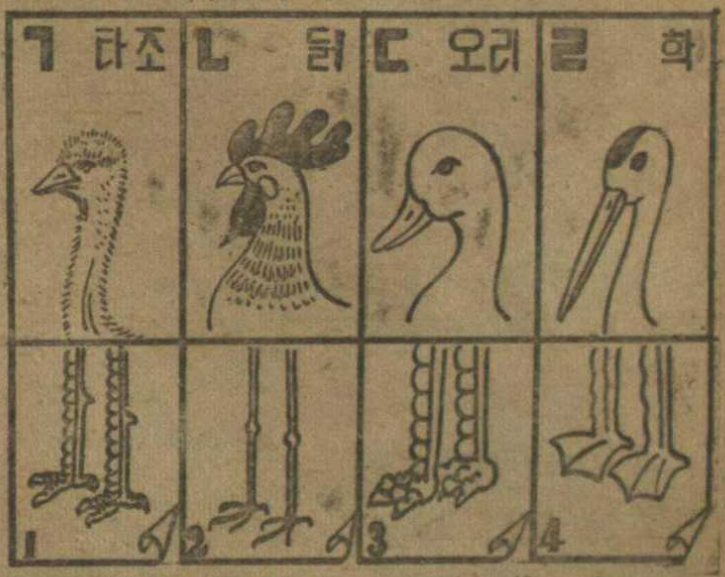
마침내 공명의 승낙을 받은 현덕은 기뻤다.

그는 즉시 관우와 장비를

애독자 아협 상타기

★문 제★

아래 그림을 잘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는 네 마리 새들이 모가지만 내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새들의 다리만 그려 있읍니다. 어느 다리가 무슨 새의 다리일까요?



서로 서로 맞는 짐승의 이름과 밑의 다리의 번호를 적어 보내시면, 바로게 맞추신 분에게 다음과 같은 상을 드리겠읍니다.

1등·10명="그림에 기채" 과 "동화책" 한권씩

2등·40명="동화책" 한권씩.

마감·3월 20일.

발표·"소학생" 5월치.

보내실 곳·서울 鍾路2街 永保빌딩. 兒協 "소학생" 編輯部

주의할 것·보내시는 분의 학교, 학년, 이름을 똑똑히 쓰고, 봉투 겉에는 "현상" 이라고 쓰십시오.

'물리쳐서 공명에게 되돌게 하고 또 가지고 온 예물을 물리게 하였다.

처음에 공명은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덕은 말하였다.

"이것은 오직 저의 조그만 정성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부디 사양마시고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날 하룻밤을, 현덕은 관우, 장비와 함께 와룡장에서 묵었다.

이튿날 공명은 아우 제갈 균을 향하여,

"유장군께서 이처럼 세번이나 몸소 찾아 주신 뜻을 저버릴 길이 없어, 나는 이제 집을 떠나려 한다마는, 비록 나 없는 뒤에라도 너는 게을리 말고 부디 농사에 힘을 써라. 공을 이루어 유장군의 은혜를 갚은 뒤에, 내 다시 돌아올까 한다."

당부하기를 마치고, 공명은 마침내 현덕의 일행을 따라서 산을 나왔다.

이리하여 마침내 공명을 이끌어 내어 신야로 돌아온 현덕은, 그를 대접하되 극 스승의 예로써 하였다.

먹는 것도 한 상에서 같이 먹었고, 자는 것도 한 자리에서 함께 잤다. 그리고 마주 앉으면 으레 천하를 바로 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일을 의논하느라, 날에 지물고 밤이 깊는 것도 모른다.

그러자 어느 날, 공명이 말하였다.

"조 조가 기주(冀州)에다 현무지(玄武池)를 파고 수군(水軍)을 조련하는 모양이, 장차 강남(江南)을 침범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사람을 강동으로 보내시어 동정을 살피어 보도록 하시지요."

현덕은 그의 말을 좇아, 즉시 사람을 강동으로 보냈다.

소년 삼국지 어려운 말 풀이

▲예물(禮物)……사례의 뜻으로 보내는 물건.

▲대부인(大夫人)……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하는 말.

▲견주다……마주 대어 보다. 비교하다.

▲전국시대(戰國時代)……중국(中國)의 주 위열왕(周威烈王)으로부터 진시황(秦始皇)이 천하 통일하기까지의 이백 사년간.

▲명인(名人)……이름난 사람.

▲잣나비……원숭이.

▲초당(草堂)……안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초가.

▲흠모(欽慕)……기뻐 사모하는 것.

▲풍설(風雪)……바람과 눈.

▲목욕재계(沐浴齋戒)……미역 감고, 부정을 거하는 것.

▲갖옷……모피(毛皮)로 안을 넣어서 지은 옷.

▲서랑(婿郞)……남의 사위를 대접하여 부르는 말.

▲재삼(再三)……두번 세번.

▲의관(衣冠)……옷과 갓.

▲정제(整齊)하다……가즈런히 하다.

오랫동안 독자 여러 분의 힘성을 받아오던 이"소년 삼국지"는, 아직 많이 남았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하여 일단 여기에서 끊기도 하였으며, 머지 않아 그 전부가 책으로 되어 나올 것이오니, 독자 여러 분은 널리 양해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편집실)

☆ 32·33 페이지 해답 ☆

사닥다리, 바이오린, 자전거, 활쏘기, 흙파는 모양, 그네, 피아노, 야구, 실패는 모양, 망원경.

★새로 나온 아협 책★
노래동무 제1집
노래동무회 엮음
책값 100원

★새로 나온 아협 책★
린 큰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책입니다
46倍版 책값 150원

소학생은 다들 지어 보내시라!

아협 상타기 **작문** 과 **동요** 네번째 모집

★상금은 모두 5만원 • 따로 학교상이 있다★

우리 "아협"에서는 이번 "어린이 날"기념행사의 하나로, 해방 후 네번째 소학생 여러 분의 작문과 동요를 모집하기로 하였읍니다. 무엇이고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조금도 꺼리낌 없이 지어 보내십시오.

상

1. 특등—2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5,000원씩
2. 우등—10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2,000원씩
3. 입선—20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1,000원씩
4.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내신 학교에는 따로 학교상을 드리겠읍니다.

★보내실 곳•서울市 鍾路 二街 永保뻘딩

朝鮮兒童文化協會 懸賞係

알아 두실 것

★자격은 현재 남한에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소학생이어야 합니다.

★작품은 소학생이 자기 혼자서 지은 작문과 동요에 한합니다.

★제목은 마음대로 하고 길이는 작문에 한하여 1,000자 안으로 써야 합니다.

★보내시는 작품에는 자기 이름과 나이, 학교 이름과 학년을 똑똑히 적어 보내십시오.

★작품은 되도록 학교에서 모아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은 4282년 4월 20일까지 도착되도록.

★발표는 4282년 5월 5일 각 신문과 "소학생" 6월치에.

★응모 작품은 일체 보내지 않으며, 당선 작품의 판권은 "아협" 소유로 합니다.

★끊아주실 분은 張志暎 선생님, 李熙昇 선생님, 皮千得 선생님, 李秉岐 선생님, 鄭芝溶 선생님, 尹石重 선생님, 趙豊衍 선생님입니다.

4282년 3월 1일 **兒 協**

◎남의 작품을 베끼거나 조금만 고치어 보내면 안됩니다. 만일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표한 뒤라도 이를 지워 버리고 상금과 상품을 도로 걷우겠읍니다. 되도록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한번 잘 보신 다음에 좋은 것으로 추려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소학생·작품

동요 **개울물**

서울 매동 국민 학교 5년

최 영 일

우리 집 건너편
개울 물은
밤 낮 없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조그만 개울 물은
흘러 흔러 흘러서
어디로 가나.

들을 지내서
강을 지내서
바다로 흐르고 있지오.

동요 **올빠미**

서울 창신 국민 학교 5년

이 승 복

올빠미의 눈은 노란데
낮에는 잘 안 보이고
밤에는 잘 보이죠.

동요 **종이배**

서울 방산 국민 학교 4년

김 성 천

내가 만든 종이배
시냇물에 띄우니
둥실 둥실 잘가네.

★동요를 뽑고 나서★

박 영 종

가물거리는 호롱불 밑에서 어린 동무들의 동시며 작문을 읽는 것은, 그 글 한 줄 한 귀마다 정이 솟아 오르듯 정다워집니다. 이 달은 우선 그 분량이 많은데 놀랐읍니다. 많이들 공부하고 있구나 싶어, 내 마음이 웃줄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작품 가운데 색 잘 지은 것이 드물었읍니다. 첫째로 "개울물"이 재미있읍니다. 가늘게 졸졸졸 흐르는 개울 가에 억

동요 **옛 궁궐**

서울 창신 국민 학교 5년

김 일 영

성은 무너져
빈 자리만 남았는데
문은 닫힌채
옛궁 안에는
나무와 풀이
자랐읍니다.

동요 **노랑 나비**

천안 부대 국민 학교

차 경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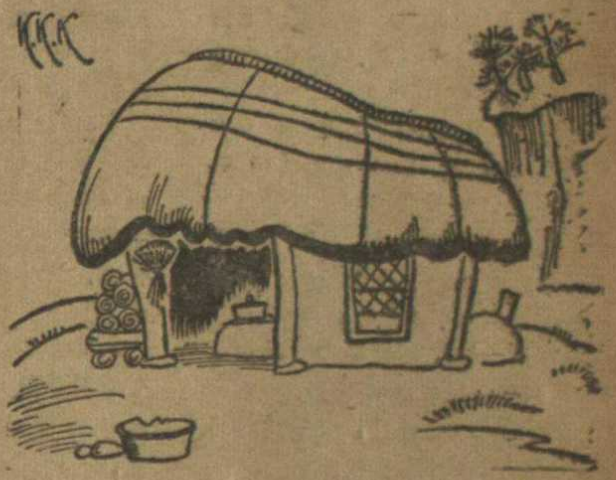
노랑 나비는
노랑 꽃에 앉아서
꿀을 먹지요.

동요 **오막 살이**

서울 창신 국민 학교 5년

오 경 훈

저산 밑에 오막살이
거진 거진 무너지는
부엌 기둥에
색은 조리 한 자루가
걸렸읍니다.



동요 **새 운동화**

서울 종로 5가 125

고 기 덕

새로 사온 운동화
예쁜 운동화
내일부터 신을까
모레부터 신을까
신을까 하니
아까운 운동화.

글 고이고 앉아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아기의 모양이 벌써 우리 앞에 선합니다. 뿐 아니라 초모는 개울 물을 따라 바다까지 가보는 그 마음씨가 좋습니다.

다음은 "울빠미"가 좋았읍니다. 참으로 울빠미는 노란 눈을 하고 있읍니다.

"종이배"는 내가 만들었다는데 그 뜻이 있읍니다.

"옛궁궐"은 시(詩)입니다. 언제 보아도 문이 닫혀 있는 옛궁궐,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잘 보았읍니다.

"오막살이"역시, 색은 조리 한 자루가 걸려 있는 오막집, 참 오막집답습니다.

소학생 구락부

▲"소학생"을 만들어 주시는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월치에 8페이지나 늘고 또 선물로"다이아몬드게임 말판"도 끼어 주셔서 매우 반가웠읍니다.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아동 작품을 많이 넣었으면 어떨까요? 변변ㅎ지 않은 작품 몇 편 보내오니 평좀 하여 주십시오. (서울 청운교 5의4 윤 성로)

△방학 동안 몸튼튼히 잘 노셨읍니까? 여러 분이 기뻐하니 반갑습니다. 아동 작품은 정월치부터 박 영종 선생님이 끊으시고 평을 쓰게 되었고,이후 많이 실려 드리겠읍니다. (기자)

▲우리 나라 장래를 두 어깨에 지고 나아갈 어린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아협 선생님, 학부형에게도 발언권(發言權)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교육적이고 흥미가 많아서,저도 가끔 읽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읽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읍니다.무엇인고 하니,자라나는 아해들에게는 위인전이라든가 혹은 세계에서 이름난 여러 걸인(傑人)들의 입지분투(立志奮鬪)한 것 등의 기사를 많이 읽게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서울 용산구 갈월동 5의 44 김동학)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후 그 방면에 힘쓰도록 하겠읍니다.다음에도 서슴지 마시고 많이 학부형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기자)

▲편집부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방 희망의 봄이 찾아 옵니다. 저는 "소학생"을 애독하는 "속빈 강정"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애쓰셔서 편집하시는 "소학생"을 읽는 덕택으로, 요새는 조금씩 속이 차가는 모양이드군요. 여기 "속빈 강정"이 쓴 동요 한편 보내오니, 보시고 지도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종종 뵙겠읍니다. 기축년 바람 찬날 아침(경기 수원 구천동 41 김 명균)

▲기자 선생님 여러 분 인사보다 더 급한게 있읍니다. 저는 지난번에 작문을 둘 보냈는데 어째 소식이 없읍니까? 봉투 겉장에는 "종로 영보 빨딩"이라고 쓰고 또 "을유문화사"라고 썼는데요. 매우 궁금합니다.소식좀 알려 주세요. (서울 배재 중학 1년 이석구)

△작품은 받았읍니다. 그런데 정월치부터 박 영종 선생님께서 작품을 모두 끊아주시게 된 관계로,잘 되었으면 박 선생님께서 기별이 있을테니 기다리십시오.(기자)

▲"소학생"을 꾸미는 선생님 아무 일 없이 지내십니까?저는 선생님께 처음 뵈옵고, 동요와 깔깔박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할말이 있는데, "소학생"에 "만들고 나서"는 꼭꼭 심선생님이 썼는데 1•2월치는 (박)이라고 써 있으니, (박)이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속히 알려 주십시오.그러면 그만 쓰고 안녕히 (서울 매동교 4년 오 원섭)

△심선생님은 이번에 "학풍(學風)"이라는 어른 잡지까지 맡아 보시게 되어서, "소학생"은 주로 박선생님이 맡아 보시게 되었읍니다. 박선생님은 앞으로 더욱 재미 있는 "소학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며, 어린이를 퍽 귀여워하시는 정다운 누나이십니다.(기자)

만들고 나서

☆강남갔던 제비가 다시 따뜻한 이땅을 찾아 돌아오는 3월이 왔읍니다.산에도 들에도 마을에도, 온갖 초목이 파릇파릇 싻트는 기쁨의 노래가 흐르는 것 같군요. 더군다나 영원히 잊지못할 민족의 날! 압박의 사슬을 풀고 삼천리 강산에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부르짖던 그러한 역사적 3월입니다. 여러 분! 우리 다 같이 3•1운동의 가르침을 본 받고 희망의 싻트는 봄노래를 부릅시다. 한 가지 대단히 섭섭한 것은, 박 태원선생님의 "소년 삼국지" 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 더 재밌고 유익한 글을 많이 써주신다고 특별히 약속을 해 주셨으니 같이 손꼽아 기다리십시다. 불쌍한 경애도,용감한 피노치오도 이제는 봄을 만나 더 명랑하고 행복하게 되겠지요. (박)

☆1•2월치는 나온지 1주일도 못되어 동이 났으니 여러 분이 얼마나 "소학생" 을 좋아 하시는지 알 수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재미있는 잡지를 만들기에 힘쓸 것을 맹세한다. (심)

4282年 3月 1日 發行

소학생 • 값 100 원

3월치 ★ 제 65호

編輯兼發行人 印刷人•主幹 尹 石 重

發行所 兒 協

4280年 9月 30日 登錄 第249號

서울 鐘路 2街 永保빌딩

電話 [光] 3873番•3882番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

서울신문社 印刷局

4280年 9月 31日 登錄 第14號

★ 創刊 [illegible] ★ 創刊 日字 4279年 7月 5日 ★ [illegible] 日字 4279年 4月 [illegible]日 ★

학雜No. 80

아동년감

二月一日발매 정가500원

서울종로-가지0 주식 동방문화사

중요 목차

(1) 우리 나라 다른 나라
1. 우리 나라의 넓이
2. 각 도세 일람
3. 각국의 넓이
4. 여러 나라의 인구
5. 세계 그림 지도
6. 세계의 높은 건물, 큰 해양, 큰 강, 큰 폭포

(2) 세계 정세
1. 세계 각국의 정세표
2. 각국 정부의 수반
3. 국제연합의 기구 조직표

(3) 역 사
1. 우리 나라 국토의 변천
2. 역사상의 중요 인물
3. 역대 연표(歷代年表)
4. 세계 역사 지도

(4) 정 치
1. 정부의 내각 일람

(5) 과 학
1. 천문학상의 중요한 발전
2. 물리학상의 중요한 발명과 발전
3. 화학상의 중요한 발명과 발전

(6) 상 식
1. 노오벨 수상자 일람
2. 동물의 수명
3. 속도 비교
4. 높이 비교
5. 국제 올림픽 경기
6. 역대 유명한 시조(時調)
7. 해방의 경위
8. 해방 후 우리 나라의 정세 변천

☆ 아협 발행 ☆

소파동화독본·한질

1. 까 치 옷 값 140원
2. 울지않는종 값 140원
3. 나 비 의 꿈 값 120원
4. 귀먹은집오리 값 140원
5. 황 금 거 위 값 1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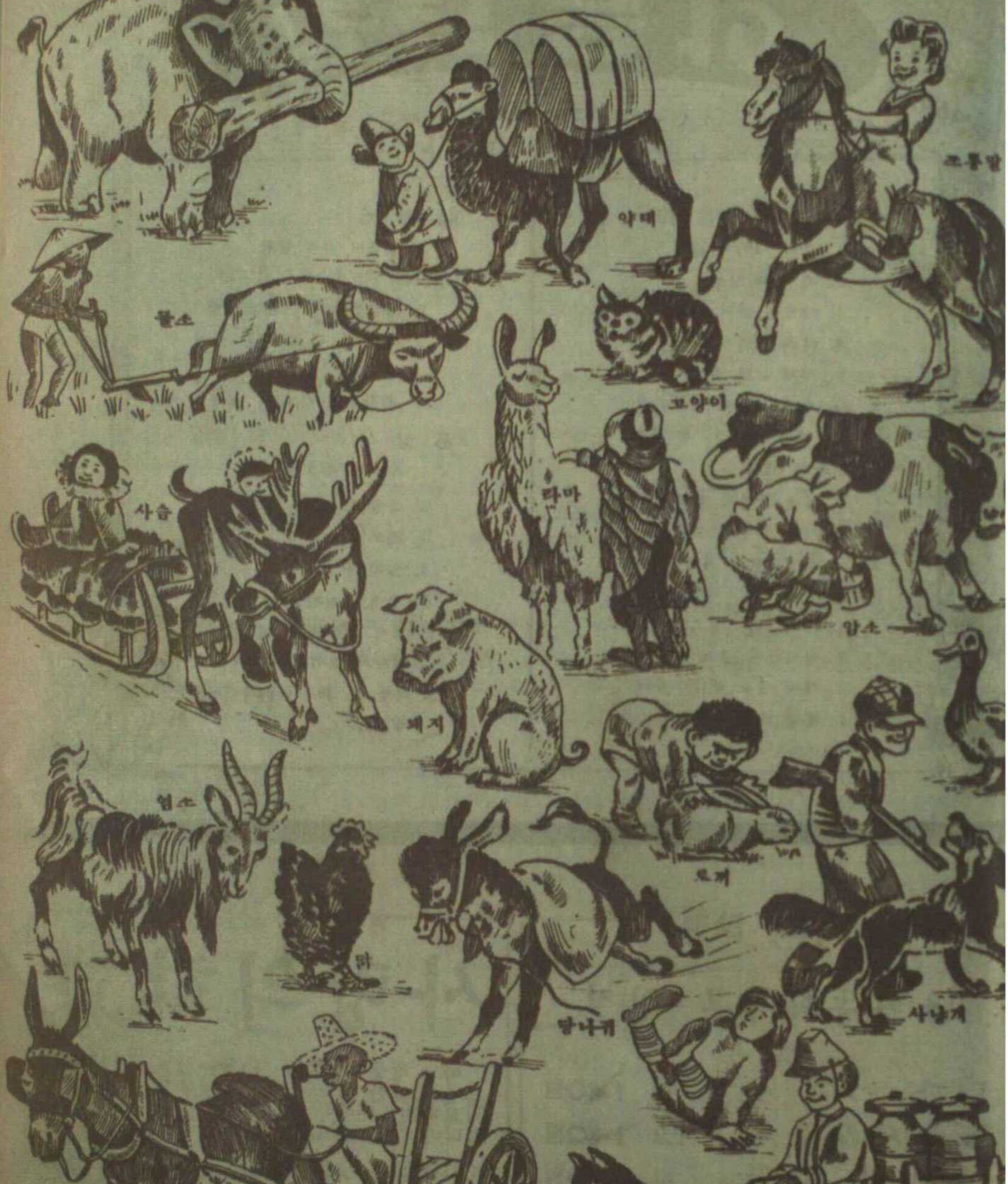
★ 아협 신간 ★

사랑의학교

학교 건물이 있고, 학생이 있고, 선생이있으면 완전한 학교라 하겠읍니까? 아닙니다. 학교에는 사랑이 넘치도록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말에서)

아미치쓰 지음·이 영철 번역
46판 230페이지 책값 300원

말아 피는데 문 장 각 서울종로2가

그림 백과 사전 ⑧ 세계 각국의 가

(설명 1 3 페이지)